

담양군 군립 도서관 설립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담양군 인문학정책 연구회

연구의원 —————

- 박준엽 대표의원
- 최용만 의원
- 노대현 의원
- 박은서 의원



담양군 군립 도서관 설립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제 출 문

담양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담양군인문학정책연구회] 대표의원 귀하

담양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담양군인문학정책연구회가 의뢰한
【담양군 군립도서관 설립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용역】 결과물로
본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9월
담양뉴스 신문사



담양군의회
담양군인문학정책연구회

참여의원



박준엽 위원(대표위원)



최용만 위원



노대현 위원



박은서 위원



담양군의회 담양군인문학정책연구회

활동내용

■ 간담회(1차)



▲1차 간담회 (2025.4.10.)

담양군 군립도서관 설립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용역

■ 간담회(2차)



▲2차 간담회 (2025.8.21.)



담양군의회 담양군인문학정책연구회

활동내용

■ 현장활동 (1차) - 부산 F1963도서관



▲부산 F1963도서관 현장활동



▲부산 F1963도서관 관계자 브리핑

담양군 군립도서관 설립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용역



▲부산 F1963도서관 브리핑 청취



▲부산 F1963도서관 -질문응답



담양군의회 담양군인문학정책연구회 **활동내용**

■ 현장활동 (1차) - 창원 주남환경학교



▲주남환경학교 현장활동



▲주남환경학교 관계자 브리핑



담양군의회 담양군인문학정책연구회

활동내용

■ 현장활동 (1차) - 마산 지혜의 바다 도서관



▲마산 지혜의바다 도서관 현장활동



▲마산 지혜의바다 도서관 시설견학



담양군의회

담양군인문학정책연구회

활동내용

■ 현장활동 (2차) - 전주 꽃심도서관



▲꽃심도서관 현장활동



▲꽃심도서관 시설견학



담양군의회 담양군인문학정책연구회

활동내용

■ 현장활동 (2차) - 전주 책기둥도서관



▲책기둥도서관 현장활동



▲책기둥도서관 시설견학



담양군의회

담양군인문학정책연구회

활동내용

■ 현장활동 (2차) - 전주 서학예술마을도서관



▲서학예술마을도서관 현장활동



▲서학예술마을도서관 시설견학



담양군의회 담양군인문학정책연구회

활동내용

■ 현장활동 (2차) - 전주 건지산숲속도서관



▲건지산숲속도서관 현장활동



▲건지산숲속도서관 브리핑 청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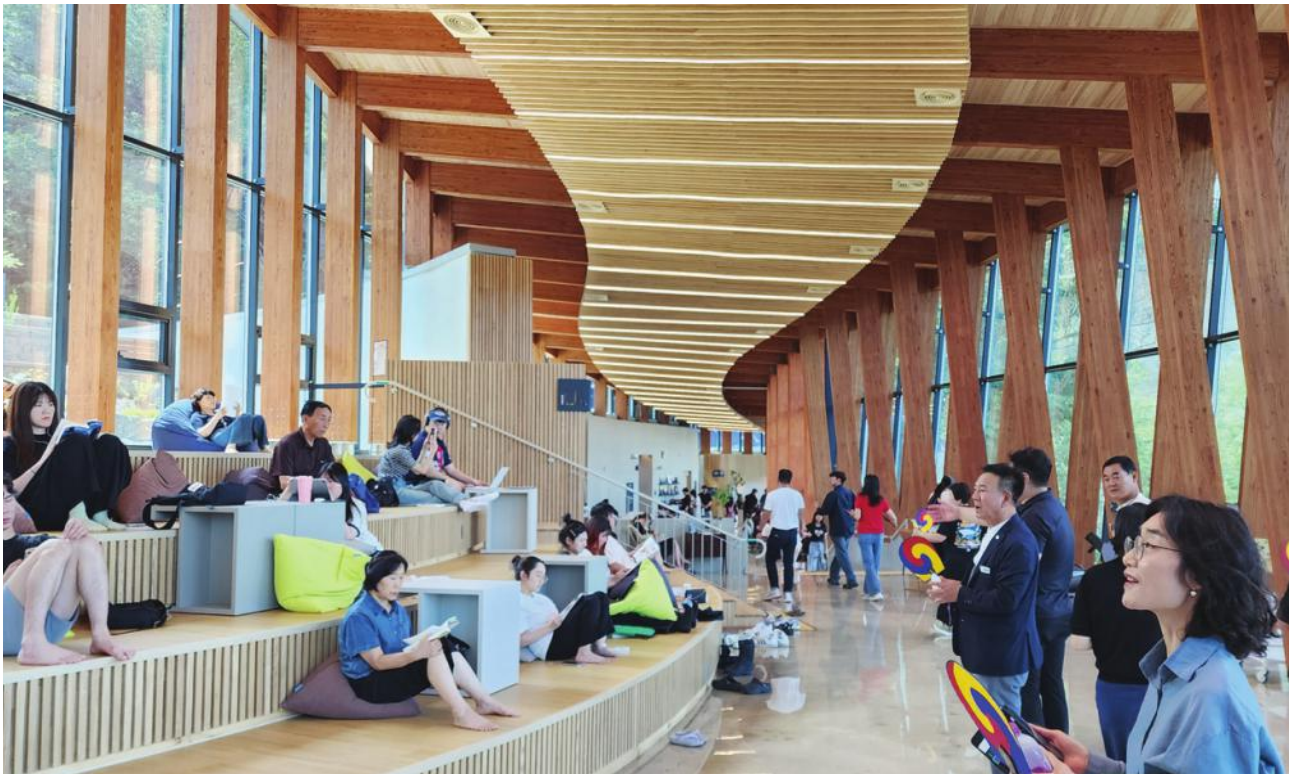
담양군의회 담양군인문학정책연구회

활동내용

■ 현장활동 (2차) - 전주 아중호수도서관



▲아중호수도서관 현장활동



▲아중호수도서관 시설견학

목 차

제1장 연구의 개요 / 21

제1절 연구의 개요 / 23

1. 연구의 명칭 / 23
2. 연구의 개요 / 23
3.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4

제2절 연구의 범위 / 25

1. 연구범위 / 25
2. 연구진행(체계) / 25
3. 현장활동 / 25

제2장 일반현황 분석 / 27

제1절 담양군 일반현황 / 29

1. 담양군 기본현황 / 30
2. 담양군 공공·일반 도서관 현황 / 33

제2절 담양군 공공도서관 운영현황 / 34

1. 공공도서관의 개념과 역할 / 34
2. 담양군 공공도서관 운영현황 / 34

제3장 담양군 군립도서관 설립 여건 분석 / 41

제1절 담양군 군립도서관 여건 분석 / 43

1. 담양군 군립도서관 설립 필요성 / 43
2. 담양군 군립도서관 SWOT 분석 / 44
3. 담양군 군립도서관 설립 문제점 / 45

제2절 담양군 군립도서관 연관사업 / 47

1. 담양군 군립도서관 연관사업 개요 / 47
2. 연관사업 추진 필요성 / 48
3. 담양군에 필요한 연관사업 방향 / 50
4. 담양군 테마형 작은도서관의 유형 / 50
5. 담양군 군립도서관 연관사업 대상(예시) / 50

제4장 선도지역 군립도서관 운영사례 / 55

제1절 담양군 인접지역 군립도서관 운영사례 / 57

1. 곡성군립도서관 / 57
2. 장성군립도서관 / 60

제2절 선도지역 인문학 도서관 운영사례 / 62

1. 공립(공공) 도서관 / 62
2. 테마형 작은도서관 / 66

제3절 도서관 성공사례 지역 현장활동 / 72

1. 제1차 현장활동(부산-창원-마산) / 72
2. 제2차 현장활동(전주) / 89
3. 제3차 현장활동(담양 창평) / 112
4. 제4차 현장활동(대구 달성) / 113
5. 제5차 현장활동(2025서울국제도서전시회) / 116

제5장 담양군 군립도서관 설립 추진방안 / 119

제1절 담양군 군립도서관 설립 기본구상 / 121

1. 담양군 군립도서관 설립 취지와 목적 / 121
2. 담양군 군립도서관 운영 비전과 목표 / 122
3. 담양군 군립도서관 추진 관련 조례 / 123
4. 담양군 군립도서관 추진 관련 보도기사 / 124

제2절 담양군 테마형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 127

1. 담양군 테마형 작은도서관 활성화 / 127
2. 담양군 테마형 작은도서관 특화방안 / 127

제3절 담양군 군립도서관 설립 및 테마형 도서관 활성화 제안 / 129

1. 담양군 군립도서관 설립 제안 / 129
2. 담양군 테마형 도서관 활성화 제안 / 131
3. 담양군의회 연구단체 의원 의견 / 133

제6장 향후 추진과제 / 139

- 향후 추진과제 / 141
- 결론 / 142



▲담양공공도서관



담양군 군립도서관 설립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

01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명칭
2. 연구의 개요
3.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1. 연구범위
2. 연구진행(체계)
3. 현장활동

01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명칭

담양군 군립도서관 설립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

2. 연구의 개요

● 정책현황 분석

담양군의 관련정책 및 실천방안을 위한 도서관 관련정책,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관련 프로그램, 관련예산 등의 현황과 추이 분석을 통한 담양군과 전국사례의 현황 분석

● 도서관현황 조사

담양군내 도서관의 시설 및 장서, 이용자 현황, 타지자체와의 비교 및 운영 프로그램 조사를 통한 인프라 확충 및 도서관 체계화 분석

● 유사사례 조사

국내외 선행연구 및 선진사례, 문헌 등을 통해 선진 도서관 운영사례 등을 조사하고 담양군 현황과의 비교분석 및 제언점과 시사점 도출

● 개선방안 제시

담양 군민이 원하는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군민과 함께 성장하며 지속가능한 담양군 공공도서관 발전 방향 모색과 도서관을 적극 활용한 담양군 관광활성화 방안 제시

- **지역특성 분석**

담양군의 역사, 문화, 자연환경 등 지역특성 분석

- **유사사례 조사**

국내외 선행연구, 문헌 등을 통해 지역특성 반영 가능한 도서관 모델 사례 조사 및 시사점 도출

- **전문가 및 주민참여**

도서관 적극 이용자와 관계자 및 전문가의 인터뷰 및 간담회를 통해 공공도서관에 대한 비전과 가치정립 필요, 향후 서비스 제안과 브랜드화를 위한 개선방안 도출

- **향후 모델 제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담양군 지역특성 반영 혁신적 군립도서관 건립 및 관광테마형 도서관 콘텐츠 개발

- **운영방안 분석**

지역사회 특화 연계 문학·독서 관련 세부 프로그램 운영방안 모색

- **타당성 근거 제시**

인근 유사 역할시설 위치, 접근성 등 환경분석과 서비스 필요성 검토, 이용 대상인구 등 도출 제시

- **지속가능한 방안 제시**

재원 확보, 담양군 지역특화 전문인력의 양성, 지역사회 협력 강화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한 향후 진행방안 모색을 통해 성공적 운영방안 강구

- **관광자원과 인프라 활용 모색**

담양군의 생활인구를 활용해 뛰어난 관광자원과 인프라 확대 구축 및 인근 도시와의 연계를 통한 관광 특수성 활용 연계전략 제시

3.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담양군 군립도서관』이라는 복합 문화공간 건립과 함께 작은 도서관 추가 건립 및 연계 활성화를 통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
- 생활인구와 관광객에게 휴식을 위한 체류공간을 조성해 생활인구 증대 및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공간 제공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
- 담양군의 생활인구 전국 1위의 장점을 적극 활용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향후 달빛철도 개설에 따른 관광객 유입을 대비한 담양군 체류형관광 강화 목적의 새로운 모델 제시.
- 선진화된 공공도서관 벤치마킹을 통한 실용적인 『담양군 군립도서관』 건립 모델과 활용계획을 제시해 건립 이후 군민들과 관광객들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제시.
- 담양군 공공도서관과 테마형 작은도서관 등 담양의 관광자원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담양의 스토리를 담은 브랜딩 방안 제시

제2절 연구의 범위

1. 연구범위

- **공간적 범위** : 담양군 전지역 및 국내외 선진 사례지역
- **내용적 범위**
 - 군립도서관 및 관광 테마형 도서관의 국내외 선진사례를 비교 및 분석해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생활인구 · 체류형 관광객 유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담양군 맞춤형 공공도서관 모델 개발
 - 담양군 상황에 맞는 공공 대형 도서관 건립과 중 · 소형 도서관 건립(리모델링 포함) 및 효과적인 배치 방안과 도서관 간의 연계를 통한 도서관 이용 활성화 방안 제시
 - 기존의 담양군 관광자원과 새로 건립될 담양군 군립도서관의 연계를 통해 생활인구 및 체류형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담양의 특수성을 살린 관광상품 개발

2. 연구진행(체계)

기본계획 진행	• 기초자료 분석
일반현황 분석	• 담양군 일반현황 • 담양군 공공·일반 도서관 현황
사업 기본구상	• 담양군 군립도서관 설립 여건 분석 • 담양군 군립도서관 설립 SWOT 분석 • 담양군 군립도서관 연관사업
현장활동	• 의원연구단체 간담회 • 국내 시립·군립 도서관 선진지 벤치마킹
활성화 계획	• 담양군 군립도서관 설립 및 활성화 방안 • 담양군 군립도서관 운영 특화방안 • 담양군 군립도서관 비전과 목표
중간보고	• 연구결과 중간보고
향후 추진과제	• 향후 추진방안 및 방향성 제시 • 결론
최종보고	• 연구결과 최종보고
성과품 납품	• 보고서 납품

3. 현장활동

- 간담회 : 담양군인문학정책연구회 의원 연구단체 간담회
- 선도지역 벤치마킹 : 국내 시립 · 군립 도서관 선진지 벤치마킹

여행자의 도시 담양 관광안내지도

Damyang Tourist map



QR코드를 확인하시면 담양 관광가이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관광지도 특성상 위치가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발행처 담양군 관광과 문화관광 홈페이지 (<http://tour.damyang.go.kr>)

관광안내소, 체험마을, 박물관, 사찰, 누정



월산면 달빛아래술길이라는 뜻으로
재방길, 데크길, 관벽을 걷을 때는
자연 생태지인 달빛아래
수변길 걷기를 통한 힐링 산책로이다



죽녹원

초록바람이 싹그려온 대나무 숲 죽녹원에 가면
8가지 주제의 산책로가 일상에 지친 심장에 청량감을 준다.
대숲길을 따라 시원한 죽원목을 즐길 수 있으며
한옥체험장, 죽녹원마을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 담양읍 죽녹원로 119 ☎ 0611380-2680



해동문화예술촌

폐산업 공간인 옛 주조장이 참매식, 공공성을 갖춘
문화 복합 공간으로 탈바꿈하였다.
술 대신 문화를 찾아 사람을 잇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 이 곳은
주조장 관련 박물관 외에도 다양한 전시회가 마련되었다.

☎ 담양읍 지평1길 6 ☎ 0611383-8246



한재골 수목정원

2021년 조성된 한재골 수목정원은 다양한 나무들이 한데 어울려
온락을 이루고 있는 숲속 산책정원이다. 배롱나무, 산딸나무,
홍송나무, 관목 등 일대에서 만나기 힘든 나무들 사이를 걸으며
담양의 정취와 자연이 주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 대전면 병동로 419 ☎ 0611380-2578



명옥헌원림

명옥헌원림은 붉은 배롱꽃이 흐르는 정원이다.
배롱꽃이 활짝 피는 8월에 배롱꽃과 청자, 사슴, 연꽃이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운 정경에 일한다.

☎ 고서면 후산길 103 ☎ 0611380-2819



소쇄원

기묘시화로 조경조가 죽림을 담화지 제자였던 최사 암산보가
비술을 버리고 자연 속에서 살기 위해 고향에 지은 정원이다.
조선시대 원림건축의 법으로 골짜기 산비의 절을 따라 돌면서
여행하는 재미가 있다.

☎ 가사문학면 소쇄원길 17 ☎ 0611381-0115





담양군 군립도서관 설립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

02

일반현황분석

제1절 담양군 일반현황

1. 담양군 기본현황
2. 담양군 공공·일반 도서관 현황

제2절 담양군 공공도서관 운영현황

1. 공공도서관의 개념과 역할
2. 담양군 공공도서관 운영현황



02

일반현황분석

제1절 담양군 일반현황



▲담양읍 전경

1. 담양군 기본현황

(1) 담양군 입지적 위상



담양군은 광주광역시 북쪽에 인접해 있으며, 영산강 최상류 지류인 증암천과 용천, 담양천 등 여러 소하천이 흐르고 있다. 담양군의 중앙은 비교적 넓고 비옥한 평야로 되어 있다.

북쪽에는 노령산맥의 추월산, 금성산, 광덕산 등 여러 험난한 산들이 전라북도와의 경계를 이루고, 서쪽은 이 산맥의 지맥인 병풍산, 불대산 등의 산이, 남동쪽은 국수봉과 무등산의 여맥이 솟아 있으며 전남평야와 연결하여 담양분지를 구성하고 있다.

담양군의 동남쪽은 곡성군, 서쪽은 장성군, 남쪽은 광주시와 화순군, 북쪽은 전북 순창군과 접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남원, 전주, 순천 등 중소도시와 근접하여 위치하고 있다.

특히, 인구 160만명의 광주광역시와 인접한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으며 고속도로 및 전남 북부 교통의 중심지로서 교통망이 잘 발달해 있어 지역간 교류의 핵심거점 역할을 하는 등 전라남도의 관문 역할과 접근성이 뛰어난 사통팔달의 교통 허브 지역이다.

아울러, 광주광역시와 가까운 지리적인 이점을 이용해 담양읍 가산리와 수북면 주평리에 첨단문화복합단지인 담빛문화지구가 조성돼 향후 입주민 4천여 명이 생활하는 신시가지로 발전할 전망이며, 고서면 보촌리에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추진중이어서 이 또한 인구 1만여 명에 달하는 신시가지와 주거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따라서, 담양군은 천혜의 자연자원과 광주광역시 인접성이라는 입지적 요인으로 인구유입 기대와 인구유출 방지를 바탕으로 한 무한한 발전 가능성과 잠재적 역량이 내재되어 있다.

(2) 담양군의 기후

담양군의 기후 특성은 남부내륙형 기후구에 속하며 온대 남부 산림대에 속해 기온이 높고, 강우량이 풍부한 지역으로 연평균 기온은 14.6℃이다. 1월 평균기온이 1.1℃로 1년중 가장 낮고 8월 평균기온은 26.1℃로 가장 높다.

연평균 강우량은 1,467mm로 비교적 많은 편에 속해 담양군의 이같은 기온과 강수량은 예로부터 사람이 생활하기에 아주 적합한 기후조건일 뿐 더러 벼농사나 작물의 재배 환경에도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어 대단히 살기좋은 고장으로 알려져 있다.

(3) 담양군의 산업적 위상

담양군은 광주광역시와 인접하고 있어 전통적인 도시근교형 농업이 발달했으나 최근들어 1, 2차 산업 보다는 자연환경과 문화유산, 인문학자원이 풍부해 생태자연과 역사문화 자원을 중심으로 한 3차산업 및 융복합관광산업이 크게 발달하고 있는 지역이다.

문화관광산업에서 담양군은 담양읍권 관광지구, 관광레저휴양지구, 청소년수련지구, 역사문화전통지구 등 권역별로 관광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방문객을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맞춰 펜션, 민박, 카페 등 숙박 및 힐링 휴양시설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담양군의 대표적인 관광지로는 전국적으로도 명소로 알려진 죽녹원,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 메타프로방스, 관방제림, 면양정, 소쇄원, 송강정, 슬로시티 창평 등이 있으며 대숲맑은도시 담양을 상징하는 많은 대나무숲과 더불어 생태도시 담양을 대변하는 담양습지 대나무숲 자생군락지가 있다.

담양읍권, 담양호권, 슬로시티창평권, 가시문화권 등 권역별로도 관광지가 집중돼 있고 권역별로 거리가 멀지 않아 관광 콘텐츠화 역량이 집약돼 있다.

담양군의 특산물로는 대나무 가공품, 죽순, 한과, 창평엿, 땃잎차 및 과실류(딸기, 단감, 포도, 방울토마토, 멜론) 등이 있어 농업소득 뿐 아니라 관광상품으로도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

아울러, 담양군 대표 관광지 인근을 중심으로 떡갈비, 국수거리, 국밥, 대통밥 등 먹거리와 즐길거리도 풍부하며 관광산업의 역량은 전국적으로도 경쟁력이 있다.

또한, 담양군은 전라남도의 중심지인 광주광역시와 인접해있고, 관문 역할을 하는 지정학적 위치에 따라 관광객들의 접근성이 굉장히 높다.

(4) 담양군의 지역 이미지

담양군은 자연생태도시와 인문학 교육특구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민과 자연이 하나되어 행복을 추구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생태전원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특히,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담양군의 이미지는 자연 생태도시로서의 모습이며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 기후변화와 자원 고갈 등의 위협으로부터 건강한 환경 속에서 질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는 고장으로 인식되고 있다.

2002년부터 지속가능 발전 생태도시 정책을 추진, 2004년 환경부 그린시티 선정 및 하천보호 습지보호구역 지정, 2014년 중앙정부로 친환경 지속가능 도시 시범지역 선정, 2015년 담양 세계대나무박람회 개최를 하였다.

또한, 지속가능 발전 생태도시 담양선언을 채택하는 등 국내 생태도시 선도지역으로써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듯 담양군은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대도시 인근에 있음에도 전통과 자연자원의 보존상태가 훌륭해 문화, 관광자원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 고장이다.

(4) 담양군 정주민구 현황

담양군은 행정구역상 12개 읍면으로 구분되며 2025년 7월말 기준 담양군의 전체 세대수는 24,015세대, 인구는 45,581명(외국인 포함)이다.

이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6,322명으로 36.87%를 차지하고 있어 초고령사회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농촌지역 고령화와 영농인력 감소, 국제결혼 증가 등으로 다문화가족, 계절근로자를 포함한 외국인은 꾸준히 늘고 있어 금년 7월말 기준 1,309명으로 전체인구의 2.87%를 차지하고 있다.

담양군의 인구는 4만5천명 선에서 약간씩 증감하고 있는 추세이며 전남도내 농촌지역 타 지자체에서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는 인구절벽 현상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담양군 인구가 4만5천명선의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거나 조금씩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은 청년층의 감소와 일자리 부족, 저출산 문제와 보육환경 미흡, 초고령화 등이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한편, 담양군의 다양하고 지속적인 인구늘리기 정책과 더불어 대규모 아파트단지 및 전원주택 조성사업이 여러 곳에서 진행됐거나 추진중이지만 이에따른 인구 증가는 그다지 성과를 못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은 담빛문화지구(680세대)와 같은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대규모 전원주택단지(772세대)가 조성되고, 또 읍면 곳곳에 적게는 200~300세대, 크게는 800~900세대 규모의 아파트단지를 조성한다 해도 외부의 유입인구 보다는 담양군 관내 자체 인구의 수평이동이 대부분이거나 잠재적 공실률이 적지 않아 인구증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즉, 담양 관내에 건설되는 아파트는 주택거주자 또는 먼지역 농촌마을 거주자들이 좀 더 편한 생활을 위해 아파트에 입주하는 사례가 많은 편이며, 경관이 좋은 먼 지역에 짓는 전원주택의 경우도 인근 광주권 도시민들이 담양 정착을 위한 영구거주 보다는 주말에만 이용하는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 지속적인 아파트단지 조성 및 주택 건축이 진행되면서도 담양군의 인구는 크게 늘지 않는 요인이 되고 있다.

2. 담양군 공공 · 일반 도서관 현황

현재 담양군 관내에는 2025년 기준 전라남도교육청 소속의 공립 담양공공도서관이 유일하며, 담양읍 백동리 미리산에 위치해 있다.

또, 창평면에 창평초등학교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사립 용주도서관이 있는 정도이다. 이 외에 읍면 지역에 소규모로 건립 또는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거나 복합공간으로 운영중인 작은 도서관이 수북면, 대덕면 등 읍면 지역에 몇 곳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담양군은 전남 22개 시군 중에서 군단위 지역으로는 보성군과 함께 아직까지 군립도서관이 없는 자치단체로 남아있어 담양군 군립도서관 건립 및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인문학 교육특구에 지정된 담양군의 위상과 지역 이미지에 걸맞는 군립도서관 설립이 시급하다는 여론과 움직임이 담양군의회를 중심으로 일고 있다.

실제로, 담양군의회는 뜻있는 의원들이 『담양군인문학정책연구회』를 구성해 담양군 군립도서관 설립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모임을 진행중이며 본 연구용역이 그 일환으로 진행중이다.



▲담양의 대표적 생태자연 관광명소(죽녹원 · 메타가로수길 · 관방제림 등)

제2절 담양군 공공도서관 운영현황

1. 공공도서관의 개념과 역할

(1) 공공도서관의 개념

공공도서관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으로, 지역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교육 기관이다.

즉, 특정계층이 아닌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게 지식과 정보 접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설립, 운영된다. 즉, 공공도서관은 ‘모든 시민을 위한 지식·문화·정보의 중심공간’으로서, 지식 접근의 평등, 평생학습 지원, 지역 사회 문화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2) 공공도서관의 주요 역할

- 정보제공 기능

책, 신문, 자료, 전자정보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이 필요한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 정보 접근을 위한 컴퓨터, 인터넷 서비스 등을 제공

- 교육 및 평생학습 지원 기능

시민의 자기계발과 학습을 돕는 다양한 강좌, 독서 프로그램, 강연 등을 운영

- 문화·여가 기능

독서문화 진흥, 전시, 공연, 지역 문화행사 등을 통해 지역 사회의 문화활동 중심지 역할 수행

- 지역사회 정보센터 기능

지역 사회의 생활 정보(복지, 취업, 건강, 지역 행사 등)를 제공하고 커뮤니티 연결 역할을 담당

- 사회적 포용 기능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제약이 있는 사람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포용성을 강화

2. 담양군 공공도서관 운영현황

(1) 담양 공공도서관

담양공공도서관은 전라남도교육청이 담양군에 설립한 공립도서관이며 담양군민의 평생학습 지원, 정보 접근성 향상,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1991년 개관했다. ‘배움·문화·소통이 함께하는 주민 중심형 지식문화공간’으로서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담양공공도서관은 단순한 자료열람 공간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평생학습 거점, ▲문화예술 교류의 중심지, ▲포용적 지역 문화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다. 2025년에는 모든 세대를 위한 열린 지식문화 플랫폼이라는 비전 아래 디지털도서관 서비스 확대, 마을학교와 학교도서관 연계사업 강화, 지역문화 콘텐츠 아카이브 구축 등을 추진중이다.



● 위치 : 담양군 담양읍 백동리 미리산길 31-48

● 설립 및 목적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과 독서문화 향유를 위해 전라남도교육청이 설립한 공공도서관이다. 담양 지역의 대표적인 지식·문화·학습 공간으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지역 주민을 위한 학습 지원 및 정보 접근 기회 제공하고 독서문화 확산 및 문화적 소통의 장을 조성하는 것을 비롯 지역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지식과 문화 중심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주요시설

종합자료실(일반도서, 신간서적, 정기간행물 등), 어린이자료실, 디지털자료실(인터넷, 전자자료 열람 가능), 자율 학습실 및 세미나실, 문화강좌실(인문학· 문해·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공간) 등

● 운영현황

• 운영시간: 주중 오전9시~오후6시(일요일 일부 시간 운영, 월요일·공휴일 휴관)

• 장서현황: 약 10만권 이상의 도서와 다양한 전자자료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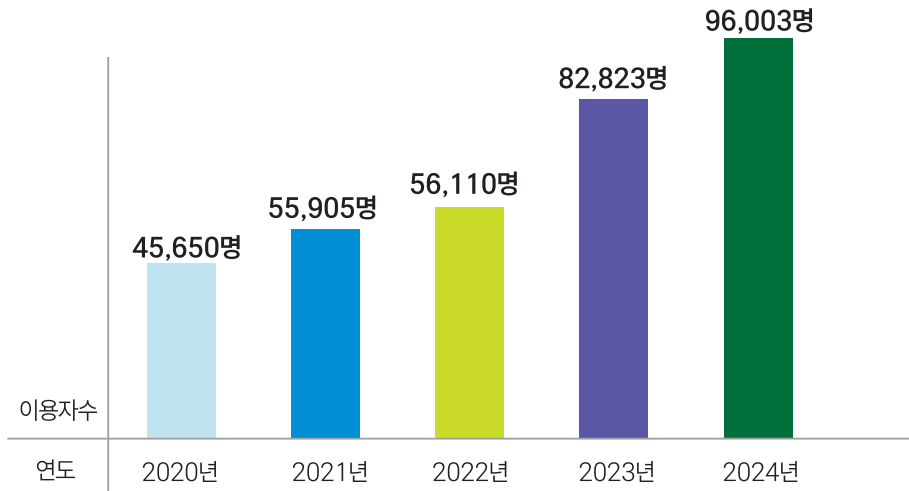
• 주요 프로그램

- 인문학 강좌: 지역주민 대상 ‘인문학교실’, ‘행복학습센터’ 등 운영
- 문해교육과정: 노인,성인 대상 기초문해교실(초등학력인정 과정 포함)
- 독서문화 행사: ‘책 읽는 담양 캠페인, 작가초청 강연, 어린이 독서캠프
- 지역예술인 지원: 지역 예술인과 협업해 전시회, 공연 등 문화행사 개최

● 연도별 연간 이용자

담양공공도서관의 연간 이용자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연간이용자수 >



< 운영현황 >

구 분	내 용
총 장 서 수	약 130,000여권(종이도서 120,000여권, 전자자료 12,000건)
신규등록장서	약 2,500권(신간 및 어린이도서 위주)
이 용 자 수	연간 약 67,000명
회 원 수	약 5,700명(정회원, 교육회원 포함)
프로그램운영	약 140회(문화강좌 60회, 독서프로그램 50회, 문해교육 30회)
자료대출건수	약 98,000건

2025 전라남도교육청중앙도서관 퇴근길 인문학

운영 시간 2025. 6. 12 ~ 10. 23, 목요일 18:30~20:30
대상 퇴근길 인문학 8월 전 8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대상 퇴근길 인문학 8월 전 8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대상 퇴근길 인문학 8월 전 8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6/12

한국 과학의 관습과 새로운 세계
박재식
 교수, 작가

6/26

철학으로 읽는 488년
안광복
 철학자, 교사

7/10

공적으로 읽는 조선의 역사
신병주
 역사학자, 교수

7/24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
정호승
 시인

2025 전라남도교육청중앙도서관 퇴근길 인문학

운영 시간 2025. 8/7 ~ 10/23, 목요일 18:30~20:30
대상 퇴근길 인문학 8월 전 8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대상 퇴근길 인문학 8월 전 8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대상 퇴근길 인문학 8월 전 8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8/7

요리한다, 고문 안간다
이옥정
 요리사

8/21

현직 학사가 알려주는 양자재 특강
염혜진
 학사

9/11

영화로 읽는 수 있는 다문화의 기본 원리
변영주
 영화감독

10/23

출마제가 있는 삶
황선우
 작가

(2) 창평 용주도서관



용주도서관은 창평초등학교 학교도서관으로 전라남도교육청의 지역사회 개방형 도서관이며 창평초교생은 물론 일반 주민들도 이용이 가능한 도서관이다.

창평초등학교는 '작은도서관 연계 운영학교' 및 '독서교육 선도학교'로 지정돼 도서관을 지역 공공문화공간처럼 활용하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도서관의 명칭인 '용주(龍州)'는 창평면의 옛 지명에서 유래했다.

- 도서관명 : 창평초등학교 용주도서관
- 위치 : 담양군 창평면 창평리(창평초등학교 옆)
- 유형 : 학교도서관 (초등학교 소속)
- 운영형태 : 학교 도서관이지만 지역주민 개방형으로 지정 →
전남교육청의 '학교도서관 지역사회 개방사업' 참여 학교
- 운영주체 : 창평초등학교 교원 및 학부모자원봉사자
- 운영시간 : 평일 학생중심(09:00~16:00), 방과 후 일부시간 지역개방

(3) 작은 도서관

【수북면 작은도서관】

수북면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손쉽게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난 2021년 9월에 수북문화센터 유휴공간을 활용해 리모델링, 문을 열었다.

수북면 한수동로 571번지 수북문화센터내 2층 40여평 공간에 사업비 1억 1,000만원을 들여 서가대, 회의실, 영화관을 갖춘 '작은도서관'을 조성한 것으로 주민들의 인문학 탐구 및 여가문화생활 서비스를 공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담빛 스마트도서관】

담빛 스마트도서관은 담양공공도서관이 지역민 생활밀착형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2년 7월 담양군 담빛문화지구에 스마트도서관(작은도서관)을 개관했다.

스마트도서관은 언제든지 원하는 책을 자판기처럼 쉽게 빌리고 반납할 수 있는 RFID 기반 무인 자동화 시스템으로 어린이 및 성인 대상 베스트셀러, 신간도서 등 250여 권을 비치하고 있다.

스마트도서관 담빛점은 양우내안에 퍼스트힐 1단지 작은도서관 내(태왕3로 37 작은도서관동 지하1층 1호)에 위치해 있으며 도서관 회원이면 누구나 365일 연중 무휴로 9시부터 22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담양군 관내 작은도서관 현황을 보면, 고서면 '모다들사랑채', 대덕면 '행복나눔센터' 등 읍면 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진행한 복합문화건물 내에 일부 공간에 작은도서관을 조성, 주민들의 독서문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또, 마을단위 작은도서관은 월산면 용흥리가 2019년 생활SOC 작은도서관 공모사업에 선정돼 '작은도서관'을 운영 중이다.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은 읍면사무소 및 마을회관 등 유휴공간과 유휴부지를 활용해 적정 시설기준인 면적 33㎡ 이상에 열람석 6석이상, 도서자료는 1천권 이상 확보해 운영하는 도서관이다. 현재 가사문학면 청춘마을 등 5개 가량 운영중이며 독서동아리 프로그램 운영 등 동네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담빛예술창고 역사공원 일원



담양군 군립도서관 설립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

03

담양군 군립도서관 설립 여건 분석

제1절 담양군 군립도서관 여건 분석

1. 담양군 군립도서관 설립 필요성
2. 담양군 군립도서관 SWOT 분석
3. 담양군 군립도서관 설립 문제점

제2절 담양군 군립도서관 연관사업

1. 담양군 군립도서관 연관사업 개요
2. 연관사업 추진 필요성
3. 담양군에 필요한 연관사업 방향
4. 담양군 테마형 작은도서관의 유형
5. 담양군 군립도서관 연관사업 대상(예시)

03

담양군 군립도서관 설립 여건 분석

제1절 담양군 군립도서관 여건 분석

1. 담양군 군립도서관 설립 필요성

담양군립도서관 건립은 인문학교육특구로 지정된 담양군의 정체성, 지역이미지는 물론이고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전남 22개 시군 중 군 단위 17개 군 중에서 15개 군이 군립도서관을 설립, 운영 중이며 담양군은 아직 군립도서관이 없을뿐더러 건립 필요성에 대한 지역사회 논의조차 공론화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어서 담양군 군립도서관 건립에 관한 지역사회 여론과 더불어 담양군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필요하다.

담양군립도서관은 인문학·정원문화 특구에 걸맞은 정체성 구현과 상징 시설로서의 역할과 기능은 물론 생활·관광 측면의 동시효과를 기대하는 주민 삶의 질 상승과 체류형 관광 촉진을 위해서도 필요한 문화복합시설로 주목받고 있다.

아울러, 국가정책으로도 시·군 단위 도서관 육성정책을 적극적으로 권장 및 지원하고 있으므로 담양군이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경우, 국비·도비·공모 확보가 용이할 뿐 아니라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청년·가족 유입을 위한 교육·문화 거점화를 위해서도 좋은 정책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담양군에 군립도서관 건립돼야 할 구체적 이유로는,

- 담양군의 정체성과 지역 브랜드 차원에서 인문학과 정원문화 특구인 담양만의 콘텐츠를 공간 · 프로그램 · 디자인에 일관되게 구현할 수 있다.
- 관광수요와 접근성 차원에서도 담양군은 생활인구 1위 지역인데다 관광객 유입이 용이하고, 특히 달빛내륙철도가 건설되는 지역이므로 향후 다양한 산업과 경제, 관광 및 문화교류에 있어 호남권 교통 허브화의 중심지역으로 역할이 가능하다.
- 지역내 유희시설 리모델링으로 단기적인 성과 창출이 가능할 뿐 아니라 향후에도 거점공간 신축과 연동한 단계적 확장 가능성이 높아 도서관 육성정책을 통한 문화교육 인프라 확장 전망이 높다.
- 경제 · 사회적 파급: 매력있는 도서관을 통해 담양을 찾는 관광객 체류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상권의 활성화는 물론 체류형 숙박과 야간경제 활성화를 촉진할뿐 아니라 지역사회 문화교육 아카이브의 질적 향상과 서비스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 담양군은 인문학 교육특구 지정과 생태정원도시를 지향하고 있어 광역단체와의 공모사업 연계성이 높을 뿐 아니라 ESG · 민관협력 모델 시범지로도 가장 적합한 지역이 될 수 있다.

2. 담양군 군립도서관 SWOT 분석

(1) 강점 · 기회

담양군의 인문학 교육특구 정체성과 국립정원문화원, 생태문화 관광자원을 결합한 담양형 브랜딩 · 프로그램으로 외부자원 유치 및 지역특화 복합문화관광 콘텐츠화 가능성

- 생활인구 전국 1위 : 잠재 이용자 풀과 체류형 서비스 확장 용이
- 인문학교육특구 · 정원문화특구 : 타 지역과의 차별화 테마 · 브랜딩에 유리
- 우수 문화관광자원 : ‘도서관-문화관광’ 상호보완 문화상품화로 특화관광 활성화 기회
- 유희 공공시설 다수 존재 : 유희공간의 저비용 · 고효율 리모델링으로 지역별, 테마별 작은도서관 활용 가능

(2) 약점 · 위협

담양군의 열악한 재정현황상 군립도서관 건립 자원 마련의 어려움과 시기적 불투명성, 그리고 공공도서관 운영의 노하우 축적 부족에 따른 운영상의 어려움

- 거점 군립도서관 부재: 분산 · 산발적 서비스 및 통합브랜드 미확립
- 전문인력 수급: 사서 · 특화 큐레이터 · 디지털 인력 확보 필요
- 자원 변동성: 대규모 초기투자 · 운영비 확보의 예산 리스크 문제
- 관광 편중 우려: 주민 · 관광 균형을 위한 정책설계 필요

〈담양군 군립도서관 SWOT 분석〉



3. 담양군 군립도서관 설립 문제점

(1) 재정적 한계 및 지속성 부족

- 낮은 재정자립도(15%): 자체 예산 확보가 매우 제한적이며, 국·도비 등 외부 자원 의존도가 높음. 이에따른 추진사업의 체계적·지속적 운영 한계.
- 우선순위 밀림: 생활SOC, 복지·기반시설 등의 예산이 항상 우선 확보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도서관 육성이나 유희공간 활용사업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우려가 큼.
- 운영비 부담: 새로운 도서관·작은도서관 신설시, 지속적인 관리·운영비(인건비, 도서구입비, 유지보수 등) 부담이 누적됨.

(2) 정책 및 거버넌스 문제

- 정책 의지 · 계획의 미흡: 그동안 도서관 및 독서문화 증진에 관한 정책적 지원이 약해 정책밀그림 및 동기부여, 홍보 역량 부족.
- 유관부서 간 협력 부진: 유희공간 관리부서(자산, 건설, 복지 등)와 도서관 · 문화부서 간 협업체계 미흡으로 추진동력 약화.
- 주민참여 거버넌스 미설정: 운영 자문단, 이용자 위원회 등 주민의견 청취 및 피드백 채널 미흡. 공간 활용의 폭넓은 의견수렴 부족.

(3) 공간 적합성 및 리모델링의 문제

- 유희공간의 부적합성: 기존 유희시설의 접근성, 규모, 구조(방음 · 채광 · 환기 등) 상 도서관 활용이 어렵거나, 공사비 과다 소요 가능성.
- 리모델링 예산 부담: 테마형 작은도서관으로 전환하려면 인테리어, 설비개선, ICT 장비 등 추가 예산 필요.
- 안전 · 법적 기준 미충족: 시설 안전, 장애인 접근성, 소방 · 냉난방 기준 등 관련 법령 충족에 따른 부담.

(4) 전문인력 및 콘텐츠 수급 문제

- 전문사서 등 인력 확보의 어려움: 작은도서관의 경우도 사서 및 특화 큐레이터, ICT 지원 인력 등 전문가 상주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 운영지원 시스템 미비: 작은도서관별 프로그램(독서, 예술, 생태 등) 기획 · 운영 노하우 부족.
- 콘텐츠의 차별화 · 지속성 부족: 테마형 작은도서관의 경우, 특색있는 장서 및 자료 구비와 콘텐츠 개발의 지속적인 예산 · 역량 필요.

(5) 이용 활성화의 한계

- 지속적 이용자 확보 어려움: 관광 중심 도시라는 특성상, 지역주민 이외의 이용자(여행자)는 일회성 방문이 많아 공공도서관의 원활한 운영동력 부족 가능.
- 지역주민(특히 읍면지역 등) 이용 저조: 읍면 등 인구 감소지역에서는 작은도서관의 지속적인 이용자 확보가 어려움.
- 프로그램의 확대 · 차별화 한계: 작은도서관은 인력 · 공간 · 예산 제약으로 인해 전주 등 대도시와 같은 연중 특화 프로그램 운영이 힘들.

(6) 지역정체성 및 브랜드 구축 난항

- 관광과 생활의 균형 설계 미비: 도서관 공간이 관광객에만 집중될 경우, 정작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약화 가능.
- 통합브랜드 · 네트워크 미정립: 분산된 작은도서관과 기존 도서관, 문화시설 간의 연계 · 공유 네트워크, 브랜드 구축의 전담조직 · 정책 부족.

(7) 기타 제도적 · 사회적 이슈

- 효과성/성과 측정의 한계: 작은도서관의 활용성과 지역 활성화, 문화 확산효과 등 정책효과 측정 어려움.
- 행정절차의 복잡성: 유휴공간 전환, 리모델링, 운영 등 각 단계별 행정 · 절차상 허들 존재.
- 관광편중 정책 지속시 지역불균형 심화: 문화 인프라가 일부 상권/관광지로 집중될 때 비(非)관광지역의 소외 심화.

제2절 담양군 군립도서관 연관사업

1. 담양군 군립도서관 연관사업 개요

지역 공공시설물 중 비어 있거나 활용도가 낮은 공간이 적지 않으므로 이를 활용한 사회 · 문화 · 음악 · 미술 ·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작은도서관 및 지역특색을 강조하는 테마형 도서관으로 활용, 지역의 인문학 관광자원화 하는 정책추진의 필요성이 있다.

즉, ‘군립도서관+테마형 작은도서관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해 담양만의 인문학, 생태, 예술자원을 살리고, 관광 · 지역문화 · 주민복지 효과를 동시에 노리는 전략의 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담양읍문화공간



▲담빛길



▲쓰담길



▲해동문화예술촌



▲정미다방



▲인문학가옥



▲추자혜

2. 연관사업 추진 필요성

담양군이 유휴 공공시설물을 활용한 다양한 테마형 작은도서관 조성과 지역 인문학 관광자원화 정책을 추진하면, 이를 통합거점이자 허브 역할을 할 군립도서관 건립·운영과 연계해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연관사업이 다양하게 제안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담양군 인문관광자원의 새로운 발굴 및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정체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작은도서관-군립도서관-관광시설'을 연계한 지속가능 문화생태계 조성은 지역 균형발전 및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활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도서관의 도시'를 지향하는 전주시의 경우, 작은도서관 네트워크(통합회원, 대출, 프로그램 등)로 시민참여와 지역서점·출판 협력 강화하고 있으며 도서관 공간을 도시재생과 접목해 관광자원화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주력함으로써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 순천시의 경우도 도심권, 주거지 등에 테마별(어린이, 생태 등) 작은도서관을 분산 설치해 시민 자원활동가가 운영에 적극 참여하고, 정원·생태 등 지역 특성과 결합한 콘텐츠 제공함으로써 성과를 거두고 있다.

(1) 유휴공간의 다기능 활용

방치된 공공시설, 저이용 문화·체육시설, 학교 유휴공간 등은 지역특색을 살린 작은도서관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 주민 생활문화 거점활용: 인문, 예술, 스포츠, 생태 등 다양한 테마공간 제공으로 세대·계층별 문화복지 실현
- 관광자원화 및 지역정체성 강화: 담양의 고유주제(죽녹원생태, 담양예술문화, 음식, 역사 등)를 스토리텔링 도서관으로 상품화
- 군립도서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작은도서관은 분산형 거점, 군립도서관은 대표허브·지원센터 역할로 상호보완구조 형성
- 작은도서관 네트워크 통합관리: 각 작은도서관의 운영 효율화, 자료의 상호교류, 군립도서관 중심의 통합 회원/대출 시스템 구축, 순환·교류 프로그램(강연, 전시, 북토크 등) 기획 및 순회 지원, 작은도서관 운영 컨설팅 및 맞춤형 사서 파견 등

(2) 지역테마 인문관광코스 개발

군립도서관과 테마형 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스토리텔링 관광자원화, 지역경제 활성화 모색한다.

- 인문학 산책길, 숲 문화로드 등 주제별 도서관을 개설해 죽녹원과 메타 가로수길 등 주변 관광·역사·생태자원을 연결하는 코스 개발
- 지역 작가, 예술인과 협업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글쓰기, 음악회, 미술전 등)
- 군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공동주관 문화행사(축제·심포지엄 등) 기획

(3) 지역자료 및 아카이브 구축

지역 정체성 확립 및 문화유산 보전, 지식관광 인프라를 구축한다.

- 군립도서관 주관으로 담양의 역사·생태·예술 아카이브(구술자료, 영상, 사진 등) 구축 및 작은도서관 연계 활용
- 테마별 작은도서관에서 지역민 구술채록 및 기증자료 접수, 군립도서관 통합 관리·디지털화

(4) 융복합 프로그램 및 학습공동체 운영

예술·음악·스포츠·과학 등 융복합 콘텐츠 제공으로 지역사회 교육·문화 수준 제고하고, 작은도서관별(음악, 미술, 전통, 생태 등) 특화 학습동아리를 군립도서관과 연계 운영하도록 한다.

- 군립도서관 전문가/교수진의 순회 워크숍, 마스터클래스 제공
- 청소년, 은퇴자, 이주민 등 다양한 계층의 학습공동체 지원

(5) ICT 기반 디지털 서비스 제공

정보격차 해소, 비대면 시대에 걸맞는 이용 편의성을 제고한다.

- 군립도서관 중심의 전자도서관(e-book, 오디오북) 시스템 구축, 작은도서관 단말기 지원
- 메타버스 기반 원격도서관, 온라인 강좌, VR지역탐방 서비스 도입 등

(6) 주민참여·일자리 연계사업

주민주도형 운영, 지역일자리 창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

- 작은도서관 운영자, 도서관 서포터즈 모집 및 군립도서관 교육연계
- 마을활동가, 문화협동조합 등 주민그룹 운영참여 확대
-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지역 인력 활용 도서관행정 일자리 사업

(7) 전국 도서관 네트워크 및 타지역 선진사례 도입

군립도서관 차원의 타지역 도서관 교류 및 학습투어, 우수 운영사례를 적용한다.

- 전주, 부산, 하동, 곡성, 대구 달성 글 등 선진지역 타지자체 정책벤치마킹 및 콘텐츠·프로그램 공유

3. 담양군에 필요한 연관사업 방향

담양군 군립도서관(허브)을 거점으로 지역 유희공간에 테마형 작은 도서관(스포크)을 여러 곳 설치하고 운영을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 작은도서관 통합관리 시스템(회원, 대출, 순환프로그램 등)
- 대나무, 생태, 예술 등 담양특색을 살린 테마도서관 운영
- 도서관-관광-주민 삶의 문화복지 기능 동시실현
- 전자자료, 온라인 강좌 등 디지털 서비스 도입
- 시민 참여형 자원봉사·서포터즈 제도 도입

4. 담양군 테마형 작은도서관의 유형

- 생태·대나무 도서관(죽녹원·영산강 생태 연계)
- 예술·공예 도서관(지역작가·공방 네트워크)
- 맛·음식 도서관(지역 음식문화 아카이브, 쿠킹북)
- 음악·미디어 도서관(작은음악회, 팟캐스트 스튜디오)
- 스포츠·건강 도서관(생활체육·웰니스 자료, 동호회 지원)

5. 담양군 군립도서관 연관사업 대상(예시)

- ① 담양관광정보센터(죽녹원 앞)
- ② 죽녹원 추월당 카페
- ③ 담양상설시장 3층 카페
- ④ 다미담예술구 빈 공간
- ⑤ LP음악충전소 (담양읍사무소 옆),
- ⑥ 담빛예술창고 전시, 문화공간
- ⑦ 해동문화예술촌 추자혜(한옥공간), 북카페(고택)
- ⑧ 정미다방(천변리 뚝방국수 앞)
- ⑨ 담양문화회관 로비(문화공간)
- ⑩ 담빛청소년문화의집(담양문화회관 옆)
- ⑪ 양매재(역사문화공원 한옥)
- ⑫ 한재골 숲속의 어린이도서관(현재 빈 공간)
- ⑬ 글로벌 문화관(다미담 예술구)
- ⑭ 기타(메타쇼핑빵집, 어린이 프로방스 곤충박물관)



▲ 담양관광정보센터



▲ 죽녹원 추월당 카페



▲ 담양상설시장 3층 카페



▲ 다미담예술구 빈 공간



▲ LP음악충전소



▲ 담빛예술창고 전시, 문화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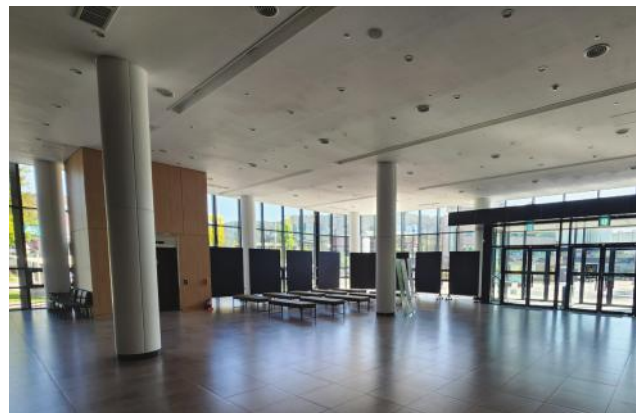
▲해동문화예술촌 추자해 한옥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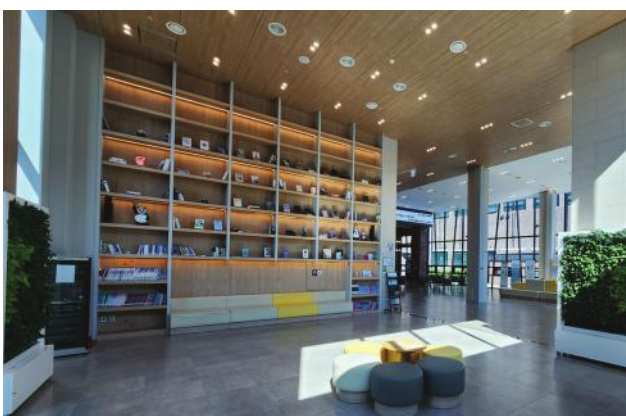
▲해동문화예술촌 북카페(고택)



▲정미다방



▲담양문화회관 로비(



▲담빛청소년문화의집



▲양매재(역사문화공원 한옥)



▲한재골 숲속의 어린이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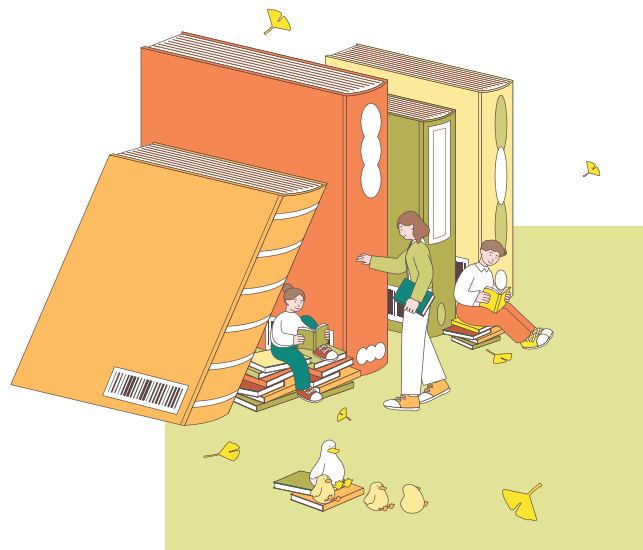
▲글로벌 문화관



▲메타쇼핑몰



▲어린이 프로방스 곤충박물관





▲마산 지혜의바다 도서관



담양군 군립도서관 설립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

04

선도지역 군립도서관 운영사례

제1절 담양군 인접지역 군립도서관 운영사례

1. 곡성군립도서관
2. 장성군립도서관

제2절 선도지역 인문학 도서관 운영사례

1. 공립(공공) 도서관
2. 테마형 작은도서관

제3절 도서관 성공사례 지역 현장활동

1. 제1차 현장활동(부산-창원-마산)
2. 제2차 현장활동(전주)
3. 제3차 현장활동(담양 창평)
4. 제4차 현장활동(대구 달성)
5. 제5차 현장활동(2025서울국제도서전시회)

04

선도지역 군립도서관 운영사례

제1절 선도지역 군립도서관 운영사례

담양군 군립도서관 설립을 위한 선도지역 운영사례 조사 일환으로 담양군 인접 곡성군, 장성군이 운영중인 군립도서관 시설 및 운영 프로그램, 애로사항 등 대해 도서관 관장(실무책임자)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1. 곡성군립도서관

곡성군은 군립도서관으로 곡성 어린이도서관, 옥과도서관 2곳이 운영중이나 현재 옥과도서관은 2001년 개관 이후 25년이 경과한 공공시설로 이용자 특성에 맞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시설공사 추진으로 임시 휴관 중이다.

곡성 어린이도서관은,

2024년 4월에 개관하여 어린이전용 도서관과 일반 도서관을 겸해서 운영되고 있다. 곡성역과 가까운 곡성읍에 위치하고 있고 섬진강기차마을, 섬진강 뚝방마켓이 인근에 있어 어린이를 동반한 관광객도 이용이 가능하다.

개관후 역사는 짧지만 갖추고 있는 장서만 해도 무려 16,000권으로 중급 규모의 도서관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도서추천 시스템, 셀프 대출반납기, 365예약대출기, 모바일 도서관 등으로 첨단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시끄러운 도서관으로 건립했으며 3D체험공간 등 다양하게 지역 주민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도서관 콘텐츠를 구성했다.

곡성군에서 직접 운영하므로 도서관장이 별도로 있지는 않고 과장, 팀장이 총괄 운영한다.



■ 곡성 어린이도서관 운영개요(요약)

- 개관 : 2024년 4월(역사는 짧지만 최신시설 보유)
- 위치 : 곡성읍, 곡성역 인근 (섬진강기차마을, 섬진강 뚝방마켓 인접으로 관광객 이용 활발)
- 특징 : 어린이 전용도서관+ 일반도서관 복합기능
- 장서규모 : 약 16,000권(중급 도서관 규모)
- 시설
 - 1층(영유아 · 저학년 중심) : 책미중(독서+행사 공간), 책마루(자유로운 독서 공간), 책기둥(도서 전시 · 열람), 뽕굴뽕굴 유아 공간(부모 동반 이용자에게 인기) 등
 - 2층(청소년 · 일반인 공간) : 일반 독서공간(연령제한 없음), 인문학 강좌 공간, 어린이 · 청소년 프로그램 다목적실, 가상현실 영상 체험공간(동화 체험) 등
- 서비스 및 운영
 - 도서추천시스템, 셀프 대출 · 반납기, 365 예약대출기, 모바일 도서관 등 첨단서비스 제공
 - 도서관장이 따로 없고 군청 과 · 팀 단위로 운영
 - 문화활동 : 80명 수준의 문화공연, 다양한 어린이 프로그램 운영
- 이용자 : 어린이집 단체견학, 관광객(특히 가족단위) 이용 활발
 의의 : 개관 1년반 만에 큰 호응. 지역소멸 대응 및 공동체 공간으로 기능
- 애로사항 : 많은 관광객의 방문으로 오히려 지역 아이들의 실제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

■ 인터뷰(운영자) 곡성군립도서관 운영 실무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했다.

【도서관 시설】

1층에는 주로 영유아나 저학년 어린이를 위한 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책마중」 공간은 어린이가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과 어린이를 위한 행사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책마루」 공간은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책기둥」 공간에는 도서관이 보유한 도서가 꽂혀져 있고 책도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외에 아이들이 맘껏 놀 수 있는 「뽕굴뽕굴 유아공간」도 있어 영유아를 동반한 부모님들에게는 무척 유익하다.

2층은 일반인과 청소년을 위한 독서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명칭은 어린이 도서관이지만 2층에서는 일반 도서관처럼 나이 제한없이 도서를 열람하고 독서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다.

더불어 인문학 강좌 등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 어린이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 어린이들이 가상현실 속에서 동화속 세상을 체험할 수 있는 영상공간이 있어 최신 도서관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결론】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의 도서관 시설 견학과 관광객 및 생활인구가 비교적 많이 도서관을 방문하고 있다.

곡성 기차마을 인근에 도서관이 위치하고 있어서 누구에게나 열린공간이며 특히, 어린이 가족단위 방문자와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는 등 인기가 좋다.

일부공간을 이용해서 80명 수준 문화공연 또한 진행하고 있다. 어린이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어서 1년 반 밖에 안됐지만 많은 분들이 방문하는 등 호응도가 아주 높다.

지역소멸 대응 및 지역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공간으로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으나, 곡성기차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 오히려 지역 아이들의 도서관 이용 기회가 적어지는 등 실제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이라서 개선해야 할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 장성군립도서관

장성군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과 장성군 홍보관 및 전시시설로 이루어진 문화시설로 2005년 5월 31일 개관했다. 휴게시설이 잘 되어있으며 동화구연, 독서지도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홍보관 및 전시공간이 잘 시설되어 있어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을 넘어 지역 문화공간으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장성군립중앙도서관 외에도 삼계도서관, 북이도서관, 진원 작은도서관, 삼서 드림빌작은도서관 등 5곳이 장성군에서 운영하는 군립도서관이다.



■ 장성군립도서관 운영개요(요약)

- 개관 : 2005년 5월 31일
- 구성 : 도서관 + 장성군 홍보관 + 전시시설 → 지역 문화시설 역할
- 특징 : 휴게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동화구연, 독서지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시설
 - 3D 영화관 : 가족단위 인기(일반 영화관의 20~30% 크기)
 - DVD 코너 : 3~4인 이용 가능, 주말 운영
 - VR 체험존 : 주말행사 시 운영, 5세~초등 저학년 적합
- 주요 프로그램
 - 찾아가는 독서교실 :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언어 · 독서 교육지원
 - 문화 프로그램 : 서예, 요가 등 성인 프로그램도 운영

- 작은도서관 : 지역센터내 설치, 자원봉사자 중심 운영(예: 홍길동 주간보호센터 내)
- 이용자 : 개관 초기에는 외지 방문자 또는 관광객 중심이었으나 현재는 군민 이용이 70~80%, 인근 광주(광산 구·북구) 주민 이용도 20~30%
- 애로사항 :
 - 사서, 프로그램 기획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에 한계
 - 사서직 도서관장이 없거나 행정직이 겸직하는데 따른 전문성 미흡
 - 면 지역 주민들의 도서관 이용 접근성의 어려움
 - 작은도서관 또한 전문인력이 없고 자원봉사자 중심이어서 전문성 미흡

■ 인터뷰(운영자)

【장성군립중앙도서관】

3D 영화관이 있어 5인 이상 가족단위 관람객들에게 인기가 많다. 일반 영화관 20~30% 축소된 크기의 3~4인 이용 가능한 DVD코너도 있다. 평일에는 방문자 수가 적어 주말에 운영하는 VR체험존은 5세부터 초등 저학년까지 주로 이용하고 있다.

장성군민 중 다문화가정이 많아 찾아가는 독서교실을 운영하며 언어, 책읽기를 통해 결혼이민자인 어머니를 대신해 아이들 교육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귀농·귀촌 프로그램을 비롯 어린이를 위한 동화구연, 독서지도, 서예, 요가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양 및 취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초창기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했으나 현재는 군민 70~80%, 광주 광산구, 북구 주민 20~30% 가량 방문하고 있다.

【삼계도서관】

한국적 정취가 물씬 풍기는 고풍스런 한옥스타일의 도서관이다. 열람실은 밤 10시까지 늦은 시간까지 운영해 직장인, 자영업자 등 밤 시간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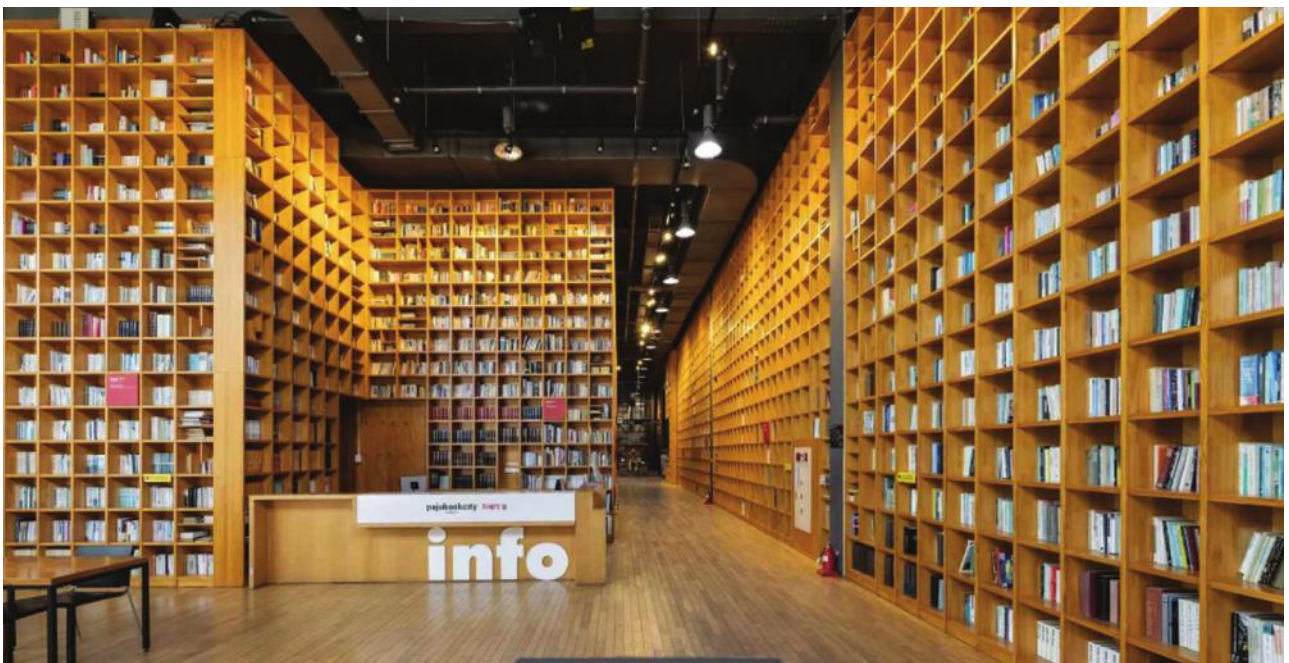
장성군립도서관은 군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으로,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인근 외지인과 관광객까지 아우르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만, 도서관 서비스가 어려운 면 단위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현재 운영중인 각 도서관의 특성을 살려 보다 많은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할 필요가 있다.

제2절 선도지역 테마형 도서관 운영사례

1. 공립도서관

【파주 지혜의 숲】

파주 심학산 둘레길은 사계절 내내 걷기 좋은 완만한 길이며, 정상에서 탁 트인 전경을 볼 수 있는 명소로 약 3시간 소요된다. 둘레길 방문 후 가까운 거리의 파주출판단지 “지혜의 숲”에서는 다양한 책들과 독서문화를 체험할 수 있으며, 라이브러리 스테이는 문화 예술 체험 및 숙박을 제공하는 독특한 장소로 자연과 조화를 즐길 수 있다. 심학산 주차장은 무료지만 지혜의 숲은 주차 요금이 부과된다.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출판문화단지 내.
- 특징 : 대규모 독서 공간과 연계된 출판 콘텐츠 중심의 도서관으로, 합리적인 서적 큐레이션 시스템과 아름다운 독서 환경
- 주요내용
 - 파주출판단지의 '지혜의 숲'은 개방형 도서관으로 뛰어난 서적과 문화 공간을 제공한다.
 - '지혜의 숲' 도서관 내 카페와 서점은 독서를 즐기고 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설계되었다.
 - 라이브러리 스테이 지지향은 독특한 숙박과 출판도시 체험 프로그램을 결합한 특별공간이다.
 - 약천사의 거대한 약사여래대불과 고요한 숲의 정상에서 멋진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 심학산 둘레길은 약 3시간의 코스며, 편안한 걸음을 위한 완만한 산길이 특징이다.
 - '지혜의 숲' 도서관은 유료 주차(시간당 2,000원)이고, 심학산 약천사 주차장은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세종시 지혜의 숲】

세종시에 국내 2번째 ‘지혜의 숲’이 개관되었다. 이 공간은 7만여 권의 장서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복합 독서문화예술 공간으로, 독서를 중심으로 인문학 프로그램, 커뮤니티 활동, 공연 등을 즐길 수 있다. 독서와 문화예술이 결합된 이 공간은 세종시와 조화를 이루며 연중 무료로 운영돼 시민들에게 독특한 문화 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 특징 : ‘책을 중심으로 한 열린 문화 공간’을 목표로, 디지털 도서 및 커뮤니티 구역 구성. 공연, 전시회 등의 복합 문화 활동도 가능
- 주요내용
 - 세종시에 국내 두 번째 ‘세종 지혜의 숲’이 개관됐으며, 이는 파주의 독서문화공간에 이어 설립된 것이다.
 - 총 7만여 권의 장서가 비치되어 있으며, 독서와 더불어 문화예술 활동이 가능한 복합공간으로 조성됐다.
 - 4층은 원통형 서가와 학습 및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으로 구성되었고, 5층은 북소리서점과 카페 꿈마로 꾸며졌다.
 - 시민들은 연중 무료로 입장 가능하며,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독서 중심의 활동이 이루어진다.
 - 개관식에서 시민과 관계자가 함께 ‘세종 지혜의 숲 선언문’을 낭독하고, 책 교환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 이 공간은 세종대왕의 정신과 날선 독서문화를 이어받아 책 중심의 새로운 문화공간 역할을 하고자 한다.
 - 문화선진국 사례를 도입한 이 공간은 독서를 활성화하고 출판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제 기적의 도서관】

인구 약 3만의 강원도 인제에 설립된 ‘인제 기적의 도서관’은 반 년 만에 5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기록하며 문화복합 공간으로 거듭났다.

이 도서관은 현대적 설계와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며,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독서뿐만 아니라 음악, 미디어, 예술 등 다양한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한, 인제 기적의 도서관은 지역문화 발전과 관광 활성화를 촉진하며



- 전국적인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다.
- 위치: 강원도 인제군.

특징: 작은 규모의 지역사회 친화형 도서관으로, 어린이와 가족 사용자를 주요 대상으로 운영한다. ‘어린이 문화

- 센터’와 유사한 기능 수행

주요내용

- 강원도 인제군에 위치한 ‘인제 기적의 도서관’은 2023년 6월 개관 후 높은 방문객 수를 기록하며 큰 주목을 받았다.
- 이 도서관은 20년 전 TV 프로그램에서 시작된 독서 캠페인의 결실로, 사회적 기부와 관심 속에 설립됐다.
- 현대적 설계로 자연광을 최대한 활용하고, 계단식 서가와 원형 배치를 통해 독서 접근성을 높였다.
- 도서관은 음악실, 미술실, 미디어실 등의 복합 공간을 포함해 다채로운 문화적 경험을 제공한다.
- 어린이 전용 공간과 수유실, 원목 미끄럼틀 등 가족 친화적 설계가 돋보인다.
- 도서관은 문화관과 연계된 행사, 지역 축제 및 문화 활동의 중심지 역할을 하며 지역 공동체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 농촌 지역에서 보기 드문 첨단 미디어 기술과 공간 활용으로 전국적인 벤치마킹 사례로 자리 잡고 있다.

【국회 부산도서관】

국회부산도서관은 국회의 첫 번째 지역 분관도서관으로, 지역 주민과 상생하며 지식과 문화를 나누는 복합문화공간을 제공한다.

도서대출 및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한편, 시민 주도적인 북큐레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해 독서와



-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 위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특징: 국회 소속 지방 도서관으로, 국내외 법령자료 및 정치, 경제 관련 전문자료 제공. 조용하면서 사색적인

- 분위기 속에서 학술 연구 가능

주요내용

- 부산을 대표하는 도서관으로 자리 잡아 연간 100만명 이상의 방문자가 독서와 문화혜택을 누리고 있다.
- 2025년부터 시민 북큐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 시민들이 직접 독서 관련 전시를 기획하도록 지원한다.
- 매월 새로운 주제를 기반으로 한 독서 전시가 진행되며, 이를 통해 시민의 비판적 사고와 공감 능력 향상을 도모한다.
- 현재 보유 도서수는 약 1,956,387권으로, 다양한 독서자료를 제공한다.
- 휴관일은 매주 화요일 및 법정 공휴일로 정해져 있다.
- 국회도서관과의 연계를 통해 온라인 콘텐츠와 자료 이용의 편리함을 제공한다.
- 지역문화 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가족 중심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했다.

2. 테마형 작은도서관

【전주시 연화정도서관】



- 위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진공원 인근.
- 특징: 전주 시민과 방문객을 위한 여유롭고 평화로운 독서 공간을 제공하며 주변 자연 경관을 감상할 수 있음. 정적인 활동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휴식 공간.

【전주 한옥마을 도서관】



전주 한옥마을도서관은 전주시가 운영하는 세 번째 여행자 친화형 작은 도서관으로, 2022년 전주공예명인관 건물을 리모델링해 설립됐다.

도서관은 대나무숲, 꿈방앗간, 마음곳간이라는 3가지 테마공간으로 구성되어 방문객이 자신을 발견하고 휴식을 취하며 책과 함께 삶을 여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전통 한옥의 미와 현대적 편의성을 갖춘 이 공간은 다양한 도서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방문객에게 독특한 독서문화를 경험하게 한다.

- 위치: 전북 전주시 한옥마을 내.
- 특징: 전통 한옥 건축 양식을 가진 도서관으로, 독서와 한국 전통 문화를 동시에 접할 수 있음. 소규모지만 방문객에게 많은 감흥을 줌
- 주요내용
 - 2022년에 개관한 전주시의 3번째 여행자 친화형 도서관으로 한옥의 멋을 담고 있다.
 - 대나무숲은 소통과 일상을 주제로, 취미 및 직업 관련 도서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꿈방앗간은 위로와 영감을 주는 다양한 도서를 테마별로 큐레이션하여 구성된 공간이다.
 - 마음곳간은 방문객이 삶의 여정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도서를 제공한다.
 - 도서관은 글쓰기, 그림 그리기 체험 등 방문객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를 교류한다.
 - 전통 한옥과 조화를 이룬 현대적 시설 덕분에 편안하고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독서를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손꼽힌다.
 - 방문객을 맞이하는 도서관 상징 고양이 '호두'는 한옥마을의 매력을 더하며 친근감을 준다.

【전주 동문헌책도서관】



전주시 동문헌책도서관은 전주한옥마을 중심에 위치한 독특한 헌책 도서관으로, 헌책의 가치를 나누고 재조명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총 4,000여 권 이상의 책이 비치되어 있다. 지하 1층은 만화방과 유사한 공간으로 재미 요소를 더하며, 지상 1, 2층은 독서 및 작업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어 방문자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한다. 가족, 친구, 연인들이 함께 추억과 배움을 공유하기 적합한 장소로,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추억의 영화 및 금서와 같은 역사적 자료도 제공한다.

- 위치: 전북 전주시 완산구 동문길.
- 특징: 헌책과 희귀 서적을 테마로 꾸며진 공간. 2022년에 개관하였으며, 전주 전통 서점의 가치를 재조명
- 주요내용
 - 동문헌책도서관은 전주한옥마을에 위치해 있으며 헌책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총 4,000여 권의 책이 비치되어 다양한 장르를 접할 수 있다.
 - 지하 1층은 만화책과 보드게임을 즐길 수 있는 만화방 스타일의 공간이다.
 - 지상 1층과 2층은 독서와 노트북 사용이 가능한 조용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 추억을 자극하는 옛날 영화와 애니메이션의 DVD 자료도 감상할 수 있다.
 - 시대별 베스트셀러와 금서로 지정되었던 책 등 역사적 자료를 제공한다.
 - 이 도서관은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가족, 친구, 연인들과 방문하기 적합하다.

【전주 다가여행자도서관】



다가여행자도서관은 전주 웨리단길에 위치한 여행을 주제로 한 특화도서관으로, 여행자들에게 독특한 쉼터와 독서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도서관은 지하 1층부터 옥상까지 여행과 연결된 다채로운 테마 공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층은 여행을 꿈꾸고, 탐색하고, 소통하며, 새롭게 즐길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 이곳은 여행을 테마로 한 서적, 가이드북뿐만 아니라 다른 도서관에서 찾기 어려운 특별한 공간으로 여행자들에게 독서와 휴식의 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 위치: 전주시 다가동.
- 특징: 2022년 1월 설립된 여행자들을 위한 테마 도서관. 지상 3층 구조로 여행 관련 교류와 독서가 주축
- 주요내용
 - 도서관은 지하 1층부터 옥상 정원까지 각기 다른 테마의 여행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 지하 1층 '다가독방'은 여행 설계와 꿈을 꾸는 아늑한 비밀 공간이다.
 - 1층 '다가오면'은 여행 관련 도서와 가이드북이 비치된 여행자 맞이의 공간이다.
 - 1층 외부에는 '책정원'과 '책풍덩!' 같은 독특한 야외 독서공간이 있다.
 - 2층 '머물다가'는 여행 매거진과 그림책을 비치하고 소통과 추억을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
 - 이 도서관은 독서뿐만 아니라 여행자들에게 맞는 다양한 체험과 휴식을 제공한다.

【전주 서학예술마을도서관】



서학예술마을도서관은 전북 전주시 한옥마을 인근에 위치하며, 2022년 6월에 개관한 공립도서관이다. 이곳은 약 1천여 권의 도서와 함께 작고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공간으로 독특한 북 카페 분위기를 제공한다. 전주 한옥마을 중심의 다양한 명소와 인접해 있어 풍남문, 경기전 등 관광 명소와 함께 방문하기 좋은 독서 및 문화 체험공간이다.

- 위치 : 전북 전주시 서학동.
- 특징 : 예술 관련 서적이 주요 테마로, 도서관 안에서 소규모 전시와 예술 강연이 진행됨. 지역 예술가들과의 네트워크 장 역할
- 주요내용
 - 도서관은 약 1천여 권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아기자기한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작은공간이다.
 - 이곳은 오래된 카페와 갤러리를 개조해 독특한 북카페 분위기를 조성했다.
 -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까워 경기전, 전동성당, 풍남문 등 주변 관광 명소와 연계한 방문이 가능하다.
 - 운영시간은 09:00~18:00이며, 매주 월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휴관한다.
 - 전주교대부속초등학교 주차장이 제공되어 방문객의 편의를 고려했다.
 - 도서관은 독서여행 및 힐링을 원하는 방문객들에게 적합한 장소로 평가받고 있다.

【전주 학산숲속시집도서관】



2022년 6월 개관한 공립도서관으로, 전주 서학동 예술마을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다. 규모는 작지만 예술 서적과 전시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지역 예술가들과의 연계가 활발하다. 예술 서적 감상과 전시, 예술인과의 소통이 함께 이루어지는 특화된 문화 공간이다.

- 주요자료 : 미술, 디자인, 사진, 연극, 음악 등 예술 분야 전문서 약 1천여권
- 공간분위기 : 아담하고 아늑한 디자인, 서정적이고 따뜻한 인테리어
- 운영방향 : 단순 자료 열람을 넘어 책과 문화를 통해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공간 기획
- 프로그램 : 예술 관련 강연, 전시, 문화 교류 행사 등
- 장점 : 감성적인 예술 공간, 지역 예술과의 연결, 커뮤니티 허브 역할

【전주 용머리 옛이야기도서관】



2022년 3월 개관한 이야기 특화 공공 도서관으로, 전주시 덕진구 용정동 ‘용머리고개’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전래동화, 설화, 민담 등 구술 문학 중심 자료를 특화해 구성하였으며, 어린이와 가족 단위 이용자에게 적합한 체험형 도서관이다.

‘이야기로 소통하는 도서관’을 슬로건으로, 책을 매개로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주요자료 : 전래동화, 전통 설화, 민속 이야기 등 옛이야기 중심 전문자료
- 공간분위기 : 따뜻하고 포근한 목재 인테리어, 동화 속 마을처럼 꾸며진 테마 공간0. 운영방향: 이야기 기반 상상력 확장을 목표로, 가족과 아이들이 함께 체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 중심 도서관
- 프로그램 : 이야기 구연, 인형극, 전통놀이, 동화 만들기 워크숍 등 가족 참여형 콘텐츠 운영
- 장점 :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맞춤형 이야기 도서관, 전통문화와 문학의 융합, 감성적이고 몰입감 높은 공간 구성

【의정부 미술도서관】



- 위치: 경기도 의정부시.
- 특징: 국내외 미술 서적과 자료가 중심으로, 예술강연 및 창작 워크숍도 진행. 대중적인 예술 접근을 목표로 예술적 영감을 전달하는 장소 도서관.

【금산군 지구별그림책마을】



금산지구별그림책마을 작은도서관은 대한민국 최초의 그림책 마을로, 전 세대를 대상으로 그림책을 통해 소통하며 치유와 휴식을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이다. 이곳은 다양한 테마 공간과 그림책 중심의 활동을 통해 독서의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고 있으며, 부모와 아이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중요한 관광자원으로 자리잡고 있다. 독서, 명상, 힐링과 같은 경험을 연계하여 삶의 에너지를 북돋아주는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 위치 :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 특징 : 그림책을 중심으로 아이들과 성인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맞춤형 공간 구성. 독서 공간 외에 소규모 전시관 운영
- 주요내용
 - 자연과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으로 그림책과 독서를 숙박, 명상, 치유 경험과 결합하여 제공한다.
 - 일본의 그림책 마을 개념을 도입하여 한국에서 처음으로 설립되었다.
 - ‘넉점반도서관’은 독특한 독서 경험을 제공하며 어린이, 청소년, 성인 모두를 위한 공간이다.
 - 아이들을 위한 ‘행복한도서관’에서는 책과 친해질 수 있는 마법 같은 시간을 제공한다.
 - 고즈넉한 한옥을 복원한 공간 ‘서유당’은 어른들이 힐링하고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장소로 인기를 얻고 있다.
 - 그림책 중심의 다양한 테마 공간 운영으로 금산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서울 경복궁도서관】



경복궁 속에 자리한 '집옥재'는 고종 황제의 서재로서 서양문물과 전통의 조화를 이루며 건축된 도서관으로, 현재는 시민들에게 개방된 역사와 문화 체험공간이다. 집옥재는 세계 여러 문화와 지식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며 다양한 책과 유물을 통해 조선 왕조 말기의 서양문물 도입 역사와 근대화 과정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집옥재는 과거의 왕실 문화를 현대적 공간으로 재해석하여 독서와 차 한잔의 여유를 제공하며, 청와대와 연결된 경복궁의 깊은 역사와 풍광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장소이다.

- 위치: 서울시 종로구 경복궁 인근
- 특징: 한옥 스타일의 역사와 현대가 교차되는 도서관으로, 독특한 작은 공간 구성이 특징이며 일반인 관람 시간과 규칙이 명확하다.
- 주요내용
 - 고종 황제의 서재였던 '집옥재'는 경복궁 내 중국풍의 건축양식과 서양문물을 통해 건축됐다.
 - 집옥재에서는 다양한 역사적 유물과 서적, 조선왕조실록 및 번역본 등 약 2,500권의 서적을 열람할 수 있다.
 - 청나라의 양무운동을 통해 수입된 서양 문서들이 소장되어 있어, 조선 후기 서양문물 수용을 이해할 수 있다.
 - 집옥재 내 팔우정은 북카페로 개조되어 커피와 전통차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 고종 황제는 집옥재를 국제 정세 파악과 계몽정책 구상을 위해 활용했으나 일제 침략으로 오래 사용하지 못했다.
 - 집옥재는 역사문화강좌를 정기적으로 열어 시민들에게 왕실문화와 조선 역사를 이해할 기회를 제공한다.
 - 경복궁 전반과의 조화 속에서 자연과 풍수지리학적 설계의 미적 정수를 느낄 수 있는 숨겨진 명소이다.

제3절 도서관 성공사례 지역 현장활동

1. 제1차 현장활동(부산-창원-마산)

- 일시 : 2025. 4. 29(화)~30(수) 1박2일
- 장소 : 부산 F1963(도서관 외 문화복합센터) 및 2개소 (마산 지혜의 바다 도서관, 창원 주남환경학교)
- 참석 : 13명(의원4, 의회사무과5~ 군청2, 용역사 2)
- 주요내용 : 도서관 및 문화복합시설 설립취지, 운영현황, 비전 등
- 주최 : 의원 연구단체(담양군인문학정책연구회)
- 주관 : 담양뉴스(용역사)

(1) 시간계획

시간계획(안)			내 용	비 고
부터	까지	소요		
(29일)	08:30		집결(의회)	
8:30	12:30	4시간	부산 도착(휴게소 경유)	버스이동
12:30	14:30	2시간	점심 및 휴식	방문지 인근
14:30	16:30	2시간	F1963 견학(간담회)	브리핑
16:30	17:00	30분	숙소 인근 이동	
17:00	19:00	2시간	석식 및 숙소	1박
(30일)	08:30		집결 및 이동 준비	
9:00	10:00	1시간	조식(숙소 인근)	버스이동
10:00	11:00	1시간	창원시로 이동	
11:00	12:00	1시간	창원 주남환경학교 견학(간담회)	브리핑
12:00	13:30	1시간	점심 및 휴식, 이동준비	창원 시내
13:30	14:00	30분	마산시로 이동	
14:00	15:00	1시간	마산 지혜의바다 도서관 견학(간담회)	브리핑
15:00	18:00	3시간	담양으로 이동 및 도착	

(2) 참석자(12명)

소 속	직위(급)	성 명	비 고
담양군의회 (4)	의 원	박 준 엽	대표연구의원
	의 원	최 용 만	
	의 원	노 대 현	
	의 원	박 은 서	
담양군청(2)	문 화 체 육 과	윤재득	
	슬 로 시 티 팀 장	하태운	
의회사무과 (5)	전 문 위 원	김금덕	
	입 법 지 원 팀 장	정상범	
	정 책 지 원 관	김희열	
	정 책 지 원 관	최 린	
	홍 보 직 원	유장수	
연구원(2)	책 임 연 구 원	1명	용역사
	연 구 원	1명	

(3) 방문지 요약

[부산 F1963]



“와이어 공장이 사람과 문화를 연결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부산 F1963”

부산 F1963 도서관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락로 123번길 20에 위치한 예술 전문 도서관으로, 과거 고려제강의 수영공장을 리모델링하여 2016년에 개관한 복합문화공간인 F1963 내에 자리하고 있다.

미술, 건축, 사진, 음악 등 예술분야의 희귀 도서와 자료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 희귀도서 소장 : 1939년 한정 발행된 ‘앙드레 쉬아레스: 파시옹 조르주 루오’ 와 같은 희귀도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사서의 안내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 이용방식: 회원제로 운영되며 연회비는 10만원이다. 비회원은 입장료 5,000원을 지불하고 3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다.
- 운영시간: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며 월요일과 주요 공휴일은 휴관이다.

공간구성: 건축가 조병수의 리모델링으로, 공장 구조를 살린 독특한 공간 디자인을 자랑한다.

F1963 도서관은 예술과 문화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 깊이 있는 자료와 고요한 독서 환경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복합문화공간 F1963의 일환으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전시도 함께 즐길 수 있다.

【창원 주남환경학교】



창원 주남환경학교는 생태환경 교육시설로 우리나라 대표적인 철새도래지인 주남저수지 인근에 자리잡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생태와 환경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시설은 1995년에 폐교된 용산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여 2021년 10월에 개교했다. 창원시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프로그램을 통해 체험 및 실천 중심의 생태환경 교육의 장으로 조성했다.

주남환경학교는 다양한 체험과 학습을 위한 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시설로는 교육실, 자연물놀이실, 자료전시실, 영상전시실, 도서관, 조류학습실 등이 있다.

- 운영 프로그램 : 초등학교 3학년 대상의 환경체험학습, 연중 프로그램 예약 등이 있으며 시민들이 자연과 환경의 소중함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 운영관리 : 주남환경학교는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주남저수지와 주남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다.

【마산 지혜의바다 도서관】



마산 지혜의바다 도서관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북12길 24-1에 위치한 신개념 복합독서문화공간이다. 경상남도교육청이 운영하며, 폐교된 구암중학교 체육관을 리모델링하여 2018년 4월에 개관했다. 이 도서관은 도시 재생 프로젝트의 모범사례로, 지역 주민들에게 독서, 문화, 예술이 어우러진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마산 지혜의바다 도서관은 지역 주민들에게 지식과 문화, 휴식을 제공하는 도심 속 거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다양한 프로그램과 편의시설을 통해 모두가 함께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주요특징(공간구성) : 총3층 규모로 1층에는 유아를 위한 레고방, 동화방, 보드방, 웹툰방, 상상창작방, 힐링방 등이 있으며 2층과 3층은 독서공간과 공연장, 카페테리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천고 10m의 서가가 인상적이며, 책으로 둘러싸인 '책의 바다'를 연상케 한다.
- 운영시간 :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매달 네 번째 월요일은 정기 휴관일이다.
- 프로그램 및 서비스 :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독서 및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공연과 전시도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카페테리아에서는 책을 읽으며 커피를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 접근성 : 장애인 주차장, 엘리베이터, 장애인 화장실, 점자블록, 음성 안내 서비스 등 무장애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모든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4) 현장활동

■ 부산 F1963



▲부산 F1963 전경2(열람실)

질문/답변

● F1963 이안기 본부장



고려제강 F1963 본부장 맡고 있는 이안기 이사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있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박준엽 대표의원

애초에 와이어 공장에서 이 F1963이라는 문화복합공간으로 변모를 할 때, 소유자인 고려제강의 순수한 의지였는지, 아니면 부산시와 뭔가 협업적인 관계에서 논의가 진행이 돼서 이렇게 변화를 하게 된 건가요?



● F1963 이안기 본부장

부지는 고려제강 현재도 이제 고려제강 부지고요. 2008년도에 공장이 문을 닫고나서 여기에 이제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한 고민을 한 거죠. 전체부지가 3만 평인데 부산시내에 사실 이런 부지는 거의 없습니다.

회장님께서서는 아파트 건립보다는 어쨌든 기업이 여기서 출발해서 성공을 했으니까 여기 부지를 뭔가 의미있는 곳을 만들어보자 해서 2013년도에 와이어 박물관을 처음으로 지으셨어요. 그러던 차에 2016년도에 부산에서 비엔날레가 열렸는데 정확하게는 2015년도 12월에 여기서 비엔날레를 개최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이 있어 전시장, 공연장, 도서관, 문화공원, 카페 등을 추가로 시설하면서 그 후에 지금의 문화복합공간으로 완성된 거죠.

● 박준엽 대표의원

그러면, 언제부터 이 공간이 유명하게 된 건가요?

● F1963 이안기 본부장

2016년도에 비엔날레가 끝나고 나서 현대의 모터스튜디오는 2019년도에 시설했는데 이후 부산에서 엄청 핫해진 공간이 된 거예요. 당시 현대자동차는 부산에 자사의 브랜드 공간을 하나 만들려고 공간을 찾다가 저희에게 제안한거죠. 저희 회사도 과거 자동차에 들어가는 와이어가 저희 매출의 한 50% 정도였기에 현대자동차가 저희하고도 굉장히 긴밀한 관련이 있다 싶어 공간을 함께 활용하도록 한 것이죠.

현대 모터스튜디오는 2021년에 완공이 됐고, 부산시에서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일부는 이제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다양한 문화공간을 추가로 시설하게 됐는데 일종의 시너지효과로 부산에서 가장 핫한 장소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어요.

기업이 먼저 주도를 하고 부산시가 같이 협업을 하는 그런 단계로 확장이 됐고 지금은 이렇게 고려제강, 현대자동차, 부산시 3개의 다른 기관들이 협업을 하는 문화복합공간으로 운영되고있어요.

● 박준엽 대표의원

그러면, 기업에서 주도적으로 처음에 공간을 구성했고 그 이후에 지자체하고 협업이 된 상황이네요. 그럼 현재 이제 도시재생사업 이외에도 여기에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나요?

● F1963 이안기 본부장

이곳에 '석촌홀'이라는 전시 공연장이 있는데 당연히 이제 프로그램을 돌리려면 비용이 들어가니까 부산시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거를 부산문화재단에 위탁해 부산문화재단이 여기서 일부 사업을 운영하고 있죠. 부산시의 예산을 받아서 1년에 한 150일 정도는 부산시와 부산문화재단이 쓰고 나머지는 저희가 쓰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 박준엽 대표의원

그럼 여기 카페나 식당공간, 서점 이런 곳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운영, 관리되는지?

● F1963 이안기 본부장

우리 재단하고 임대계약이 되어 있는 거고요. 전체 운영과 관리는 우리 재단이 하는 거고 지금 여기 상업 시설들은 우리 재단 임대계약 형식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 박준엽 대표의원

현재 도서관도 임대 계약인가요? 아니면 이 공간은 고려제강 재단에서 운영하는지?

● F1963 이안기 본부장

이곳 문화공간 운영관리를 위해 고려제강에서 2017년에 문화재단을 만들어 운영중입니다. 그래서 도서관도 어쨌든 고려제강이 운영하는 문화재단에 임대료를 냅니다.

● 박은서 의원

문화재단이 부산에 속해 있는 문화재단이 아니라 자체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운영중인 것인가요?



● F1963 이안기 본부장

공간내 상업시설과 문화공간 관리를 위해 고려제강 자체적으로 문화재단이 있는 거고, 공익적 문화사업 운영을 위해 부산시 문화재단이 이곳 공간을 공동으로 운영 관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박은서 의원

이 정도 규모의 서고 같은 경우에 수집을 처음에 할 때는 어떠셨나요?

● F1963 이안기 본부장

지금 이곳에 1만 3천권 내지 1만5천권 정도가 있거든요.처음에 설립할 때 컬렉션을 도와주셨던 전문가분들이 있어요. 영역별 전문가들이 도와주셔서 책을 선정했고 매년 저희가 바꿉니다. 올해는 희귀도서를 좀 사자, 그리고 내년에는 또 어떤 분야의 책들이 집중적으로 구매를 하자 이런 거에 따라서 전문가 도움을 받는 거죠. 국내외 전문가분들이 저희랑 같이 협업을 하면서 다양한 컬렉션에 도움을 주고 있어요.

● 박은서 의원

결국은 자본이 기본이 돼야 이 정도 규모가 시작할 때 가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수익사업이라고 봐야 하나요?

● F1963 이안기 본부장

뭔가 지역에서 좋은 일을 하고 싶어 하는 회장님의 의지가 있으셨고 그런 측면에서 계속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임대수익이 나오긴 하지만 사실 부지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관리 면적에 비해서 사실 수익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 박은서 의원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가요?

● F1963 이안기 본부장

조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다 돈이 많이 들어가죠.

● 박준엽 대표의원

관리운영 주체인 문화재단의 F1963 출연금은 어느 정도인지? 또, 이곳 운영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 F1963 이안기 본부장

회장님 개인 사재도 있고, 회사 계열사에서도 출연을 했고, 문화재단 출연금은 많지는 않아요. 관리는 용역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 하태윤 팀장 (담양군 관광과 슬로시티팀)

처음에 공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화복합공간으로 이렇게 재생했는데 예산은 대략 어느정도 들어갔는지?

● F1963 이안기 본부장

예산보다 한 2배 더 들어간 것 같아요. 의미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제 비용을 투자해서 이렇게 조성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 충분한 가치와 또 그거에 대한 혜택은 이제 지역사회라든지 사람들이 다 누리고 있는 거니까 그만큼의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노대현 의원

주로 어떤 공간이 있으며 이용 상황은 어떤가요?



● F1963 이안기 본부장

여기에 테라로사도 있고, 서점도 있고, 전시 공연장도 있고, FMD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 기본적으로 가족 단위로 와서 책 사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전시 보면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공간으로 작동하고 있거든요. 평일에는 엄마들이 애 학교 보내고 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저녁에는 또 연인들이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되게 넓은 거죠. 여기에 들어와 있는 패넌트들의 어떤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걸 누릴 수 있는 계층도 다양하다는 거죠. 작년에는 한 41만 명 정도 왔어요. 그전 코로나 기간에는 방문자가 떨어지고 그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사람들이 찾았어요.

● 박은서 의원

도서관 이용은 어떻게 하나요, 연간 회원 같은 경우에 부산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할 걸로 보이는데요. 회원 제로도 운영하나요?

● F1963 이안기 본부장

1일 도서관 입장료는 3시간 기준 5천원입니다. 멤버십으로도 운영되는데 회원이 한 250명 정도 됩니다.

● 박준엽 대표의원

이곳 도서관에서는 뭔가를 이렇게 남기거나 하는 그런 문화재단의 역할이 아니고 완전히 정말 부산을 위한 사회공헌적인 역할로서의 제공인 것 같네요.

● F1963 이안기 본부장

그렇죠. 재단은 어쨌든 모든 발생하는 수익을 가지고 이제 다 목적사업을 위해 써야 되는 거니까 도서관을 운영하는 거고 책 사고,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연주회도 하고 전시회를 이용하고 그러는 거죠.

● 박은서 의원

도서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것 또한 좀 트렌드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느 방향에 맞춰서 이 도서는 좀 빼고 다른 거 보충하고 이렇게 하시나요? 그러면 혹시 빼는 도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 F1963 이안기 본부장

물론 트렌드를 반영하는 책들을 수시로 구입합니다. 매년 1년에 저희가 사는 게 한 2억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오래된 책들이라든지 이거는 도서관에 보관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것들이나 또는 잡지류 같은 경우는 계속 생기잖아요. 책들은 일부를 빼서 저 앞에 유리 온실이 있거든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재고 조사를 해요. 거기서 이관을 합니다. 거기는 도서관 회원이 아닌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거죠.

● 박은서 의원

다른 곳에 기증하거나 이런건 따로 없나요?

● F1963 이안기 본부장

그런 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기증은 봤지만 저희가 아직까지 기증을 다른데 할 만큼의 그런 컬렉션은 또 아니기 때문이에요.

● 박준엽 대표의원

전 세계에 한 500권 정도밖에 없는 희귀도서도 보유를 하고 있던데.

● F1963 이안기 본부장

희귀 서화 같은 경우는 한 권에 3천만원짜리 책도 있고 그래서 그런 책들은 별도의 허가로 사람들이 볼 수 있죠. 그리고, 카탈로그 레이젠이라고 피카소 것도 있고 몇 개의 책들이 있어요. 매년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책들은 해외에 가서 직접 책을 사오기도 하는데 그러다보니 해외 도서관하고 점점 네트워크도 형성되고 있어요.

● 박은서 의원

이곳이 도서 공간이긴 한데 그래도 문화적인 공간으로 봐야 되니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좀 새로운 기획을 좀 발굴해 내야 되지 않나 이런 강박관념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 F1963 이안기 본부장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간에서 매주 수요일 아카데미 수업이 있고요.그다음에 전에는 저희가 연주회도 했었어요. 도서관 안에서 보시면 피아노도 있고 연주회도 저희가 저희 했었고, 세미나나 이런 행사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긴 한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반 도서관처럼 막 이렇게 책을 보고 또 이런 또 공간은 아니어서 늘 새로운 걸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되게 많다고 봅니다. 회원분들은 오셔서 그냥 자유롭게 음악 들으면서 공부도 하고 그래서 국회도서관 관장님도 오셔가지고 이게 이제 도서관의 새로운 모델이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 최용만 의원

여기 도서관을 운영하는 취지와 의미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나요?



● F1963 이안기 본부장

사실 지금은 잘 아시겠지만 대학교에서도 전자도서 예산이 거의 70%가 넘습니다.

그럼 과연 도서관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도서관이 뭔가 그런 모델이 아닌가. 우리는 이제 예술도서관이라는 걸로 이제 계획을 했는데 예술도서관이라는 걸 왜 우리가 했냐 하면 사실 저 안에 예술도서의 책을 꺼내서 하나 보는 것만으로도 이 작가의 작품을 다 감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의 전시를 보려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막 찾아다니는 갤러리아 미술관을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의 카탈로그 레지의 체크 한 권을 보면 이 사람의 모든 작품들을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예술을 저렇게 책의 형태로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저희의 어떤 목적이기도 하거든요. 예술을 사람들이 접할 수 있지만 그걸 책을 통해서 접하지만 아주 잘 만들어진 인쇄본의 책을 보면 이게 또 굉장한 또 사람들에게 경험을 주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예술 도서관을 만든 거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도서관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다” 라는 게 이제 저희의 생각이니까 그래서 이런 기획을 하는 거죠.

● 박은서 의원

여기에 건축분야를 결합을 시킨 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F1963 이안기 본부장

이곳을 재생건축을 했는데 이 공간에서 건축이 차지하는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왜냐하면 이 건물을 만들면서 저희가 굉장히 고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재생건축이라는 거는 이제 경험도 없고 우리나라에 사례도 많이 없어서 이 건축이라는 거는 도시의 품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도시에 있어서 이 도시의 품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도 좋은 건물이 얼마나 있느냐 라는 게 저희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만들면서 건축에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거든요. 건축에 대한 저희의 관심과 애정이 되게 높습니다.

이 건물을 만들 때도 그랬고, 이 도시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게 저희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문화예술에 있어서, 여기에 미술도서관도 있지만 그중에 건축분야가 하나 들어간다는 있는 이유가 그런 거죠.

- 박준엽 대표의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이야기 나눔으로써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사전에 저희들이 또 둘러보기도 했거든요. 정말 많은 부분들이 또 또 시각적인 이런 확대 효과를 가지고 저희 지역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F1963 이안기 본부장

참고로 당초 계획에는 여기에 대나무 숲이 없었던 것을 저희가 조성한 것입니다. 저희 회장님께서 대나무를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시죠.

- 박준엽 대표의원

어떻게 보면 고려제강과 저희 담양군의 콜라보가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F1963 야외공간에 조성된 대나무숲의 특별한 의미까지 담고 가겠습니다.



F1963 현장활동

■ 간담회 / 시설견학 / 질문응답



■ 창원 주남환경학교



▲창원 주남환경학교 간담회

실무자 인터뷰 요약 / 현장활동

담양군도 담양의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활용해보고자 방문하신 건가요?

이곳은 폐교로 오랫동안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인근에 주남저수지 생태관광지가 있다 보니 애초에는 생태전시실 정도로 저희가 활용하다가 환경체험학교로 한번 바꿔보자는 제안이 있어서 전임 시장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교 후에 사유지로 있었는데 주민들이 동의를 하고 창원시에서 2019년에 교육청을 상대로 매입했어요. 현재 창원시 주남저수지과에서 운영을 지원하고 경상남도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현장체험 학습을 이곳으로 가도록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체험을 도와주시는 거죠. 현재, 외부에 위탁해서 체험학교를 운영중인데 연간 위탁 운영비가 4억원 입니다. 운영관리 인원은 교장, 사무국장, 실무자 4명, 청소 2명명, 자원봉사자와 해설사, 체험강사 포함해서 약 3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남환경학교는 창원시에서 폐교를 리모델링해 운영하는 환경체험 학교입니다.초등학생들 주로 체험을 하고 있고요. 주중에는 초등학생, 그다음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저희 체험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2시간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 주말은 가족이 함께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문가 강연도 진행합니다.

주로, 습지랑 철새랑 관련된 것을 전문가 강연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일주일 내내 외부에서 방문자들이 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근교에서 많이오시죠. 그런데, 전문가 강연 할 때는 이제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특히, 도심이 가깝다 보니까 초등학생 체험은 다른 곳보다 조금 더 많은 상황이고요.현장 체험 자체가 의무니까 초등학교 3학년 체험활동은 거의 매일 있는 상황이고 월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생 대신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체험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게 진행중인데, 만약에 담양군이 폐교를 도서관으로 활용을 하시려고 하면은 또 그 안에서 또 체험을 진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요즘 도서관은 너무 많고 그래서 체험을 진행 안하면 도서관도 아마 운영하기 힘들실 거예요. 담양군이 폐교를 도서관으로 활용하셔도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셔야 될 겁니다.

도서관으로 아마 운영하시면 평일에는 이용객이 오후 시간밖에 없을 거고 주말에 이제 가족단위로 오시니까 저희 처럼 이렇게 체험형으로 진행을 하시면 평일 오전도 이제 이용객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남환경학교 현장활동

■ 시설견학 / 질문응답





▲마산 지혜의바다 도서관 간담회

실무자 인터뷰 요약 / 현장활동

지혜의바다 도서관은 폐교시설을 활용한 도서관이라고 많이 들으셨을 건데요. 폐교된 학교의 체육관을 도서관으로 재활용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곳은 창원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입니다. 2017년 3월 2일자로 이 학교가 구암중학교 남학생들이 공부하던 학교였으며 구암여중이랑 이제 통합합하면서 폐교가 되었고, 폐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경남교육청에서 주도를 해서 도서관으로 재활용 사업을 시작했고 어느 정도 안착이 된 이후에 이제 관리운영권을 창원시교육청으로 이관 했습니다.

기존 전형적인 도서관에서 탈피해 좀 더 재미있고 새로운 볼거리, 느낄거리들이 있는 도서관으로 차별화를 하되는데 의견이 모여져서 그런 방향으로 리뉴얼

을 진행했습니다. 체육관을 리모델링 하다보니 도서관 공간을 꾸미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기는 했어요.

우리 마산 지혜의바다 도서관 1층은 유아 자료실이 있는 공간이고, 폐쇄적인 방이 조금씩 나뉘져 있는 테마공간이 많아서 오히려 소음이 덜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2층은 당시에 조금 인기가 있었던 레고, 그다음에 만화, 보드, 메이크업, 스페이스 이런 공간들을 꾸몄습니다. 보통 자료로 많이 보셨던 마산 지혜의바다 도서관을 검색하시면 많이 보시는 그 공간입니다.

이곳은 평소에는 자료실로 이용하고, 매주 토요일 3시가 되면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무대 공간이 따로 있고 그 공간 앞쪽에 이동이 가능한 서가가 있습니다. 이동이 가능한 서가를 좀 옮겨서 좌석을 만들고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3층 공간은 집중이 가능한 몰입형 독서공간입니다. 저희 도서관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물입이 잘 되는 곳은 여기 3층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시청각실은 이제 구암중학교 이름을 남기겠다는 의미로 ‘구암홀’이라고 지었습니다.

저희 도서관이 특별한 것은 이곳에서 책도 대출하고 공부도 하면서 공연도 같이 즐기는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서관은 ‘공연특화 도서관’이라고 하고 있고요. 태권도 공연, 클래식 공연, 그리고 다양한 재즈나 하프 공연 등 여러 가지 공연도 하고 있고 어린이 뮤지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공연은 지금까지 약 288회가 가량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연은 월에 4회 정도가 고정적으로 운영중입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올해 상반기 8개 프로그램 운영하고 하반기에 7개 프로그램 진행할 예정이고, 아울러 독서진흥행사라고 해서 좀 이것저것 소소하게 많이 모여져 있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대략한 30개에서 한 40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올해 예산은 다소 줄어서 5억 8천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고요. 이중 크게 구분해서 도서구입비가 1억 500

만원, 독서문화진흥행사비가 1억 5천만원, 나머지는 기본 운영비랑 인건비 등으로 쓰여집니다. 운영인원은 사서직과 교육행정직, 공무원 포함해서 모두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이 유명세를 타면서 작년에도 일본에서도 오시고, 스웨덴, 그리고 키르기스 공화국 등 다양한 나라의 도서관 관계자들이 여러 곳에서 오셨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 도서관이 그렇게 인기가 있을 거고 엄청 좀 이슈가 될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의 약속은 당초 “마산의 랜드마크가 되어보겠다, 그리고 시민을 위한 독서복합문화 공간이 되어보겠다, 도심 속 거실이 되겠다”는 포부를 가졌었는데 이제 그렇게 만든 겁니다. 매년 이용자 설문조사를 하면 이용자분들이 이제 진주나 고성 더 먼 곳에서도 오시거든요. 이제는 경남의 창원이 아니라 경남의 대표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독서 복합문화공간의 거의 중심에서 있는 곳이 되었다는 것에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산지혜의바다 도서관 현장활동

■ 시설견학 / 질문응답



2. 제2차 현장활동(전주)

- 일시 : 2025년 7월 1일(화)
- 장소 :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및 4개소
(서학예술마을도서관, 책기둥도서관, 건지산숲속도서관, 전주아중호수 도서관)
- 참석 : 14명(의원4, 의회사무과5, 군청3, 용역사 2)
- 주요내용 : 도서관 및 문화복합시설 설립취지, 운영현황, 비전 등
- 주최 : 의원 연구단체(담양군인문학정책연구회)
- 주관 : 담양뉴스(용역사)

(1)시간계획

시간계획(안)			내 용	비 고
부터	까지	소요		
	08:30		집결(대나무박물관 주차장)	
9:00	10:00	1시간	이동(담양→전주시립도서관 꽃심)	버스이동
10:00	11:00	1시간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브리핑
11:00	11:20	20분	서학예술마을도서관	시설소개
11:30	11:50	20분	책기둥도서관	시설소개
12:00	13:10	1시간 10분	중식 및 티타임	
13:40	14:10	30분	건지산숲속작은도서관	시설소개
14:30	15:00	30분	전주아중호수도서관	시설소개
15:00	16:00	1시간	이동(전주→대나무박물관 주차장)	버스 이동

(2)참석자(14명)

소 속	직위(급)	성 명	비 고
담양군의회 (4)	의 원	박 준 업	대표의원
	의 원	박 은 서	부의장
	의 원	최 용 만	
	의 원	노 대 현	
담양군청(3)	관 광 정 책 팀 장	배 민 영	
	문 화 예 술 팀 장	설 은	
	인 문 학 교 육 팀 장	신 혜 경	
의회사무과 (5)	입 법 지 원 팀 장	정 상 범	
	홍 보 팀 장	이 현 우	
	정 책 지 원 관	김 회 열	
	정 책 지 원 관	최 린	
	홍 보 팀	이 다 빈	
연구원(2)	책 임 연 구 원	1명	용역사
	연 구 원	2명	

(3) 방문지 요약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전주의 대표 시립도서관으로 2019년에 개관한 복합문화공간형 도서관이다.

‘꽃심’은 전주를 상징하는 순우리말로, 시민들의 문화적 역량과 삶의 질을 꽃피우는 공간이 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개방형 창의 도서관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적용해, 모든 세대가 자유롭게 책과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제공한다.

- 시설규모 : 지하 1층, 지상 4층
- 공간구성
 - 1층 - 유아·어린이 자료실, 중증장애인 일자리 카페, 여행자 도서관
 - 2층 - 일반자료실, 열람실
 - 3층 - 청소년(트윈세대) 공간, 문화 강좌실
 - 4층 - 다목적실
- 운영방향 : 단순 자료 열람을 넘어 책과 문화를 통해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공간으로 기획
- 특징 : 다양한 문화 행사와 체험 프로그램, 쾌적하고 세련된 인테리어
- 장점 : 복합문화공간의 기능 수행, ‘여행자 도서관’ 등 특색 있는 서비스 운영. 전 세대를 아우르는 공간 설계

【책기둥도서관】



전주시청 1층 로비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조성된 이색 도서관이다.
공공청사 내 공간을 시민 휴식과 독서 공간으로 전환한 사례다.
마치 책을 쌓아올린 듯한 외관 구조 덕분에 '책기둥도서관'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 소장도서: 약 8,500여 권
- 4개 책기둥 테마:
 - 세계 도서관 관련 도서, 전주의 도서관 책, 시민 추천 도서, 출판사 큐레이션 도서
- 공간특징: 개방형 구조, 고요하고 아늑한 분위기
- 위치: 전주한옥마을 인근, 시청 로비에서 자연스럽게 접근 가능
- 장점: 독특한 디자인과 구조, 전주 관련 서적 비치, 관광지 연계성

【서학예술마을도서관】



2022년 6월 개관한 공립 도서관으로, 전주 서학동 예술마을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다.
규모는 작지만 예술 서적과 전시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지역 예술가들과의 연계가 활발하다.
예술 서적 감상과 전시, 예술인과의 소통이 함께 이루어지는 특화된 문화 공간이다.

- 주요자료 : 미술, 디자인, 사진, 연극, 음악 등 예술 분야 전문서 약 1천여 권
- 공간분위기 : 아담하고 아늑한 디자인, 서정적이고 따뜻한 인테리어
- 운영방향 : 단순 자료 열람을 넘어 책과 문화를 통해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공간으로 기획
- 프로그램 : 예술 관련 강연, 전시, 문화 교류 행사 등
- 장점 : 감성적인 예술 공간, 지역 예술과의 연결, 커뮤니티 허브 역할

【건지산 숲속작은도서관】



건지산 산책로 한가운데 위치한 숲속 도서관으로, 자연과 함께하는 독서 공간을 제공한다.
2013년 개관하였으며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나무에 둘러싸인 통유리 건물로 이루어져 있어 숲의 고요함을 만끽할 수 있는 힐링 공간이다.

- 소장도서: 약 3,000여 권 (자연, 환경, 힐링 중심)
- 주요시설: 독서실, 산책과 연계한 독서 공간, 조용한 열람 환경
- 운영방향: 도시의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 속 독서를 통해 마음의 안정을 추구
- 위치: 건지산 산책로 내, 자가용 이용 편리
- 장점: 자연 속 독서 경험, 숲 경관 감상 가능, 조용하고 안정적인 분위기

【전주 아중호수도서관】



2025년 6월 25일 개관한 최신 도서관이다.

전주 아중호수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음악 특화 도서관이라는 독특한 콘셉트를 가지고 있다.
호수뷰를 즐기며 음악과 책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 공간컨셉 ‘101’ 시리즈:
 - M101 - 책과의 만남 공간
 - U101 - 사람, 빛, 음악의 조화 공간 (호수 전망 열람석)
 - S101 - 소리와 울림, 프로그램 운영 공간
 - I101 - 음악 큐레이션 도서관
 - C101 - LP 감상 공간
- 축특징: 길이 101m 단층 구조, 음악 감상과 독서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구조
- 소장자료: 음악 관련 서적, 문학, 지역 자료 등
- 장점: 탁 트인 호수 전망, 음악 중심 콘텐츠, 감성적 공간 활용

(4) 현장활동

■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질문/답변

●도서관 관계자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꽃심 도서관은 전주시의 대표 도서관으로 13개 분관을 가진 시스템의 중심 도서관입니다. 특히 오늘 소개해 드릴 3층 공간은 12-16세 청소년들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공간입니다.

●박준엽 대표의원

꽃심도서관 3층은 어떤 기획 의도로 만들어진 건가요?

●도서관 관계자

저희는 청소년들에게 ‘제3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학교나 가정이 아닌,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기존 도서관과는 다른 형태로, 청소년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노대현 의원

공간 설계 과정에서 특별히 고려한 점이 있나요?

●도서관 관계자

저희는 청소년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그들이 원하는 공간의 모습을 물었고, 그 결과 청소년들은 짜여진 프로그램보다는 자유로운 활동을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활동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자율적 환경으로 조성되었습니다.

●박은서 의원

그럼 이 공간은 전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하는 건가요? 어떤 운영체계가 있나요?

●도서관 관계자

기본적으로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청소년들의 안전과 공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운영철학의 핵심은 간섭하지 않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소속감을 느끼면서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최용만 의원

운영자의 역할은 어떻게 되나요?

●도서관 관계자

저희 운영자들은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관찰과 필요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활동을 존중하면서, 필요할 때만 도움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박준엽 대표의원

꽃심 도서관에서는 주로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나요?

●도서관 관계자

저희 도서관은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물론 도서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책을 읽는 활동이 중심이 되지만, 그 외에도 창작 활동, 토론, 휴식 등 청소년들이 원하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3층 공간은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만든 공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20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는 공간중에서 어느 공간에 인기가 가장 많고 많이 머무르는지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관찰을 하고, 그걸 콘텐츠로 어떻게 바꾸고 개발을 할 것인가 그런 것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또 아이들을 관찰해서 콘텐츠도 개발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박은서 의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아이들을 위한 공간인데, 아래층은 일반 도서관이잖아요. 어른과 아이들하고 왔을 때 아이들이 부담을 갖지는 않아도 되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한 건물인데 제 이야기는 3층만 따로 분리를 해

서 조성한 도서관 보다는 분리했을 때 더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 본거죠.

●도서관 관계자

어른과 아이들의 부담은 전혀없는 상황이구요, 여기 자기들만의 공간이 있다는 것에 만족감을 크게 느끼고 있어요.

아이가 여기로 오려면 픽업해 주고 데리고 오고 하면서 이 공간을 이제 아이를 데려다 주러 처음에는 왔는데 오니까 시간을 보내야 되잖아요. 애를 다시 데리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몬 가족이 도서관을 이용하게 됐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되게 감동적이었거든요. 평소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다른 연령의 시민들도 이 공간을 통해서 2층을 함께 이용하는 이용자가 확장된 그런 예여서 저희도 정말 이런 공간 하나 도서관에 넣는 게 그냥 12~16세에 아이들한테만 어떤 인사이트를 주는 공간이 아니고 시민들 전체 혹은 가족 전체를 변화시키는 어떤 그런 원동력이 되는 공간이 되었구나 뿌듯하게 느끼고 있어요.

●최용만 의원

여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동아리처럼 운영하기도 한데, 처음 오는 아이들은 조금 써먹거릴 수 있겠다 싶은데요?

●도서관 관계자

12세에서 16세 사이의 연령이면 누구나 올 수 있는 공간이고요. 다만, 처음 오는 아이들은 여기 와서 뭘 하지 뭘 해야 뭘지를 모르는 친구들도 많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미디어 전시를 저희가 해요. 이 공간에서 활동한 아이들이 만들어낸 작품들, 그리고 또 만들었던 친구들은 자기 작품을 또 보여주면 내 작품이 있을 때까지 앞에서 또 기다리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친해지겠구나.

그리고, 또 또래여가지고 친구랑 같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저희가 오전에 이렇게 비어 있을 때는 학교에 제2의 교실이라고 해서 학교에 공간을 내어 드려요.그래서 선생님이 직접 아이들 데리고 단체로 여기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왔다가 너무 마음에 들어 다시 재방문할 수 있게끔 해서 두 번째 방문 때부터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있게 하거든요. 단체로 왔다가 좋아서 혼자서 또 오는 친구들도 있고요.

●노대현 의원

여기가 시에서 운영하는 거죠. 여기 공간만 대략 연중 이용객은 어느 정도인지?

●도서관 관계자

평일에는 단체를 빼면 한 50명 정도 이용을 해요. 평일 전체를 봤을 때 50명 정도 이용을 하고요. 주말에는 많아요. 주말에 주말에는 저희가 여기에 머무르는 친구를 40명으로 제한을 했어요. 40명의 공간이 넘어서면 이 콘텐츠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제한을 뒀어요.

이용하는 친구들이 완벽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40명이 넘어가면 밖에 대기하고 있어야 되고요. 이용 시간의 제한은 없어요.

●최용만 의원

계절에 관계없이 주로 전주 시민들 위주로 운영되는지, 그리고 타지역 아이들도 3층 공간 이용이 가능한지?

●도서관 관계자

타 지역 주민과 아이들도 이용이 가능해요. 예를들어 타 지역에서 할머니 댁 방문했을 때 와볼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럴 때는 임시 회원증 발급해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박준엽 대표의원

아래 2층 열람실 같은 경우는 이용객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서관 관계자

굉장히 많은 편이죠. 하루에 평균 500~600명 정도 돼요. 지역민 뿐만 아니라 전주에 여행 오신 분들도 많이 이용하는 거죠.

●박준엽 대표의원

여기 시설 관리하는데 인원이 지금 몇 명 정도인가요?

●도서관 관계자

저희 꽃심도서관에 모든 과가 다 있어요. 여기가 대표 도서관이거든요.

13개 시립도서관 중에 대표 도서관이어서 본부장님 계시고 4개 과가 같이 있고요.

전체인원은 50명 정도이고 운영부서에 8명 있습니다. 13개 시립도서관 전체직원 총 245명입니다.

사서가 140명으로 50% 가량이고 나머지는 공무원, 기간제, 일반직 다른 직종까지 저희가 총 245명 정도 근무합니다.

●박준엽 대표의원

이번 방문의 목적은 저희도 정책에 반영하는 거거든요. 연중 도서구매는 얼마 정도 하고 전체 이 도서관 관련 해서 나가는 예산은 얼마고, 전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책을 빌리거나 반납을 했을 때 포인트제를 운영해서 인근의 시중서점에서 책을 구매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 주시면 참고하려고 합니다.

●도서관 관계자

저희도 국비 예산이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올해 본예산이 확정이 됐고요. 그러다보니 운영과 예산만 20억원 정도 책정됐어요. 저희 도서관 예산이 작년에 한 120억원 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리모델링 예산으로 올

해는 80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도서 도서 구입비로 한 6억 필요한데, 3억을 본예산에 세웠고요. 이번 추경에 1억에서 4억 정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작년 예산이 6억이었거든요. 올해 2억 정도 삭감이 된 상태예요. 정부 예산삭감 등으로 모든 지자체가 비슷한 상황이죠.

●박준엽 대표의원

사전답사때 제가 주목했던 게 ‘포인트제’ 운영이었는데요.

도서를 빌림으로서 시중에서 도서를 구매할 수 있는 포인트를 쌓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도 운영의 성과는 어떤지요?

●도서관 관계자

인증제를 통해 전주시의 서점에서 책을 구입할때만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 51개 지역서점이 포인트제 사업에 동참했는데 상반기에 5개가 더 늘어 제도시행에 따른 효과가 성과를 내고 있으며 참여하는 지역서점이 계속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의 도서관과 시민, 그리고 출판사와 서점들 모두의 생태계 모두를 살리는 콘텐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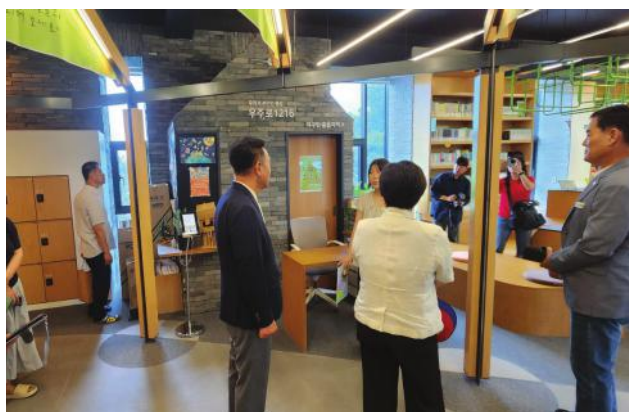
●박준엽 대표의원

바쁜 시간 내주시고 상세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전주 꽃심도서관의 발전과 성공을 기원하며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현장활동

■ 시설견학 / 질문응답



■ 책기둥도서관



▲책기둥도서관

관계자 인터뷰 요약 / 현장활동

책기둥도서관은 2020년 11월에 개관해 올해 5년째 운영중입니다.

2016년부터 2층에 작은 도서관 공간이 있었는데 그 공간을 1층까지 확장하게 된 건 2020년 11월입니다. 그 때 개관을 해서 지금까지 쪽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장님께서 딱딱한 시청 건물 민원실을 어떻게 하면 문화복합적인 공간으로 시민들에게 내 집 서재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셨고, 로비를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문화 복합적인 공간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책기둥도서관' 이라고 이름을 짓게 된 이유는 전주시청사가 1983년도에 지어졌는데 40년이 넘은 긴 시간 동안 여기 기둥들이 시청 청사를 든든하게 떠받쳐줬던 것처럼 여기 놓여 있는 많은 책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삶의 기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책기둥도서관' 이라고 이름은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개 기둥에는 4개의 독서 생태계 요소를 하나씩 담고 있습니다. 이쪽 기둥쪽은 시민들이 추천하는 책, 이쪽 기둥쪽은 월드 서가로 세계 도서관이나 서점에 관련된 책, 이쪽은 전주서가라고 해서 전주 시립도서관에서 특화로 잡고 있는 주제들이 있는 책,

이쪽은 출판사 서가에서 추천하는 책, 이런 식으로 독서 생태계의 요소들을 담고 있는 4개의 서가로 꾸며져 있습니다. 시청 민원실 공간을 활용해 도서관 서가를 꾸몄으며 민원인들의 부담없이 자연스럽게 민원을 보고 책도 읽을 수 있도록 콘텐츠를 구성했는데 시민들의 반응이 좋았고, 나아가 전국적인 유명세도 타고 있습니다.

또, 직원들이 시청 청사 엘리베이터 이용시 기다리는 무료한 시간에 잠깐이라도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앞 공간을 ‘갤러리 서가’ 라고 이름을 붙여 이용하도록 했는데 역시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계절별로 큐레이션을 하고 있는데 텀이 조금 길다고 해서 현재는 두 달에 한 번씩 바꾸고 있습니다. 7~8월은 여름 느낌이 나는 책의 표지로 큐레이션을 했고 오른쪽은 나른한 여름을 좀 날려줄 음악 관련 책들을 큐레이션 해서 잠시라도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의 청사가 미술관, 도서관은 아니지만 마치 미술관과 도서관에 온 것처럼 인테리어를 해서 관공서 느낌이 전혀 안 난다고들 합니다.

책기둥도서관의 재미는 또 있는데요, 이용자들의 생일을 접목해서 서가의 책을 찾아보는 일종의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반응이 좋습니다.

이쪽 서가에 366권이 책이 있고, 책을 자세히 보시면 날짜가 써져 있는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요. 책을 지은 작가의 생일이거나 아니면 이 책 속에 나오는 주인공이 이날 생일인 겁니다. 이용자의 생일과 작가의 생일이 같은 날의 책을 찾아보면 그 책이 더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다는 재미가 있는 것이죠.

예를들어, 이용자가 내 생일날 이런 분이 태어났구나 한번 읽어봐야겠다 하고 인증샷도 찍고 재밌어 하죠. 이 서가를 만들게 된 이유는 내 생일은 1년에 하루지만 내 하루를 빼고 나머지 날들도 누구의 생일이니까 1년 366일 제일 소중하지 않은 날은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만들어진 서가입니다.

또한 어린이 서가도 따로 있고, 계단서가도 있는데 이곳 계단에서는 주말에는 책 놀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신체활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열려 있습니다.

책기둥도서관은 1년 365일 휴관일은 없고, 다만 법정 공휴일만 쉬고 있어서 월화수목금토일 상시 오픈을 하고 있으며 1인 5권까지 도서대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일반적인 도서관 이라기보다는 그냥 복합문화공간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에 일 보러 왔다가 검사겸사 잠깐 시간을 내서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차도 한잔 마시면서 공연도 보고 시간을 보내는 그런 문화공간인 것이죠.



책기둥 도서관 현장활동

■ 시설견학 / 질문응답





▲서학예술마을도서관 브리핑

전주시 소재 서학예술마을 도서관은 예술 특화 도서관의 공간 구성, 운영 방식,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파악해 관내 도서관 정책 및 문화시설 운영 방향에 반영하는 한편 지역 예술가와 협력하는 문화공간 운영모델을 연구하기 위해 방문했다.

■ 도서관 개요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2022년 6월 개관했다. 기존 예술가 운영 카페를 리모델링 및 증축해 2층 구조로 조성했으며 일부 공간은 과거 의원원 · 주택이었던 건물의 구조를 보존하며 리모델링, 지역 역사성을 반영했다.

● 특화방향:

예술 특성화 도서관으로 사진 · 음악 · 미술 3대 주제를 중심으로 자료 및 전시 구성. 지역 예술가 및 외부 유명 작가와 협력한 큐레이션 운영. 전주국제그림도서관과 연계한 기획전시 및 원화 전시(예: 백희나 작가 작품 기증)

● 운영특징

공간별 주제 서가 구성(‘깃들다’, ‘스며들다’, ‘물들다’ 등)으로 차별화. 팝업북, 컬러링 엽서 등 관람 · 체험 결합형 콘텐츠 제공. 매달 전시 교체, 작가 무료 대관 → 재능기부 프로그램 제공 방식으로 운영.

● 공간별 구성

- 메인동(팽나무동) 1층 : 중앙 테이블, 예술 관련 간행물, 홍보물 비치. 주제별 전시 서가 및 항공 큐레이션(매달 1권 책 전시).
 - 깃들다 서가: 서학동 지역작가 작품 · 전시자료 수집 전시
 - 스며들다 서가: 음악관련 도서, CD · LP 감상시설, 정원 조망 공간으로 조성

- 담쟁이동: 의료원 건물 리모델링, 나무 소재로 아늑한 분위기 연출. 조각다락 포토존 조성해 이용자들에게 큰 인기.
- 물들다 서가: 미술관련 도서 비치, 컬러링 엽서 체험 제공
- 지하 갤러리: 매달 전시교체(예: 도자기, 크로키 등), 작가 무료 대관 + 재능기부 프로그램 제공 방식.
한 달에 한 번 방문시 새로운 전시관람 가능
- 은행나무동(신축): 2023년 완공, 커뮤니티 공간 · 강의실 2개 · 계단 쉼터 운영

● 운영 프로그램

- 기획전시: 국내외 유명 작가 초청 및 테마별 큐레이션.
- 상시체험: 팝업북 감상, 컬러링 엽서, 정원 감상.
- 문화 프로그램: 작가 재능기부 기반 워크숍 · 강좌.
- 지역연계: 서학동 예술마을과 협업, 마을 축제 · 전시 연계 가능.

관계자 인터뷰 요약 / 현장활동

서학예술마을도서관은 2022년 6월 개관한 예술특화 도서관입니다.

예술 관련 정기간행물을 주로 소장, 보유하고 있으며 전주시 홍보물과 도서관 홍보물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외관과 내부 모두가 약간 느낌이 빈티지한 느낌이 있는데, 원래 예술가가 운영하던 카페를 저희가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개관한 도서관입니다.

1층짜리 카페를 2층으로 높이고 바로 옆 의료원이던 건물을 연결해 지금의 도서관으로 조성했습니다. 동화책, 그림책, 미술전문서적을 비롯해 국내외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들이 전시돼 있을뿐 아니라 외부 조경도 아름다운 도서관이죠.

우리 도서관은 크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사진, 음악, 미술 분야 도서를 소장, 또는 기획전시하거나 관련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 이용자들이 간단히 볼 수 있도록 예술 에세이나 예술 관련 자료 이런 것들을 여기에 두고 있고요. 예술마을 근처에 거주하는 작가들의 작품도 많이 있고, 전시회 팸플릿이나 도서도 수집해 전시하고 있습니다.

음악서가는 CD나 CD 플레이어가 있어 이용할 수 있고 이 공간에서 정원을 내려다보면서 음악감상을 하거나 음악 관련된 책들을 볼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고 맞은편에는 LP랑 LP음반도 한 60여 개가 있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에서는 지하공간까지 전시가 다양하게 이루어져요. 지난 6월에는 도자기 전시가 있었고요, 7월에는 누드 크로키 전시도 진행될 예정이에요. 이 공간은 저희 도서관에 한 달에 한 번은 꼭 오셔야 되는 공간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요. 왜냐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새로운 도서관 전시로 교체가 되고 작가들에게 무료로 대관을 해주면, 작가들은 저희한테 재능기부로 프로그램을 해 주세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양질의 프로그램을 이용자분들께 제공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은행나무동은 2023년도에 새로 지어진 신축 건물이며 커뮤니티 공간으로 쓰고 있어요. 강의실 2개와 계단쉼터라고 불리는 곳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앉아서 누워서 책도 볼 수 있고 쉬면서 공부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서학예술마을 도서관 현장활동

■ 시설견학 / 질문응답



■ 건지산숲속 작은 도서관



▲건지산 수목 작은도서관 관계자 설명

관계자 인터뷰 요약 / 현장활동

건지산 숲속도서관은 숲 특화 도서관입니다.

전주시에는 시립도서관이 12개가 있고, 직영도서관으로 작은도서관이 14개가 있는데 이곳도 그중 한 곳입니다.

2011년도에 산림청이 공모한 녹색 나눔숲 조성사업의 일부로 이곳 숲속에 도서관을 지었고요, 2013년도 5월에 개관했습니다. 대지면적 130제곱미터에 건물은 50제곱미터 규모로 작고 아담한 도서관입니다. 개관후 3년째 부분적으로 시설 개설공사를 실시해 야외에 데크를 설치했고 도서관으로 오는 입구에 회랑을 설치했습니다. 도서관 내부는 숲 풍경을 조망할 수 있도록 통창으로 설치했는데 이용자들이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숲이나 나무, 동식물 곤충, 특히 환경이나 기후 위기 이런 관련한 도서들을 조금 더 배치를 했어요.

공간이 좁다보니 2중서가를 설치했고 약 3,200권 정도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운영은 9시부터 6시까지고,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도서는 숲속도서관 여건상 대출은 안되고 여기 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용자는 2023년도에는 6천여명 가량이었는데 작년에 약 7700명이 방문해 약간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평일에는 적으면 10명~20명 좀 넘게 오고요, 주말에는 30명에서 50명 가량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숲 특화 도서관이다 보니 봄, 가을에 정기적으로 프로그램 진행하는 게 '숲 놀이' 라고 해서 지금 밖에 보면 맨발걷기 하시는 분들이 간혹 보일 텐데 맨발 걷기나 나무 밑에서 명상하거나 그리고 식물화분 만들기 등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1년에 한 4~5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또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아무래도 더위가 있어서 도서관 방문이 좀 어려운데 눈이 내리는 겨울에는 숲속 풍경 보러 그냥 도서관에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도서관 인근에 전북대학교 병원과 의과대학이 있어서 의대생들이 시험기간에 와서 공부도 하고, 쉬면서 책도 읽기도 하는데 어쨌든 연령층이 예전에 처음 개관했을 때보다 지금은 골고루 전 연령층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편백나무숲에 조성한 이 도서관이 생긴 후 지금은 인터넷 등을 통해 소문이 났는지 도서관 여행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일주일 전에 아중호수도서관이 개관했는데 담양 메타세콰이어길이란 담양호 호수가 있으니, 아중호수도서관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지산 숲속 작은 도서관 현장활동

■ 간담회 / 시설견학



■ 아중호수 도서관



▲아중호수도서관

관계자 인터뷰 요약/ 현장활동

아중호수도서관 운영담당을 맡고 있는 박종원 주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중호수도서관은 올해 6월 25일 개관한 도서관이고요. 전주시에서 공공도서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건립예산은 약 85억원 이고요 공사기간은 4년 가량 걸렸습니다.

우리 도서관의 특화 주제는 ‘음악’ 이어서 음악 주제에 관련된 분위기의 도서관입니다.

아중호수변 옆 폐도로 부지를 활용해 조성한 도서관이어서 그 때문에 외관이 상당히 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 길이가 101m의 구조이고요, 목재로 된 도서관으로 지어졌습니다. 이 101m는 상당히 긴 도서관인데 이 긴 도서관을 저희가 5개의 구역으로 크게 나눠서 공간 구성을 했고요. 5개의 공간은 저희가 음악의 영문자 스펠링이 뮤직이어서, 뮤직의 앞 글자를 따가지고 하나씩 이름을 지었습니다.

바로 옆에 왼쪽과 오른쪽에 보이는 장소가 이제 m과 s인데요, 101은 저희 도서관 101m 길이를 나타내는 숫자를 따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이제 ‘m101’ 은 모먼트, 그러니까 만나는 순간에 대한 공간으로 도서관에서 처음 들어왔을 때 만나는 순간을 좀 더 친근하게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른쪽에 있는 장서가 문학도서관인데 전면에 보일 수 있도록 저희가 배치를 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이제 이 ‘s101’ 은 사운드 공간입니다. 대형 98인치 전자교탁 TV도 있어서 음악 관련 다양한 영상 자료들 아니면 프로그램이라든지 소규모 강연도 진행할 수 있도록 구축을 했습니다.

확 트인 호수가 보이는 ‘u101’ 공간의 u는 ‘유니진 ‘이라는 글자의 앞자를 따서 지었습니다. 유니진은 화합

이라는 뜻이어서 사람과 책, 그리고 음악과 자연이 하나 되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고요, 이곳에서는 앞으로 있을 교향악 공연이나 음악 공연, 강연 행사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유롭게 이제 앉아서 열람도 하고 휴식도 하고 바깥 경치도 구경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저희 음악도서관의 음악자료 특화 서가는 음악자료 서가라고 해서 음악 자료만 넣지 않고 오브제인 것 같으면서도 스피커인 것 같으면서도 하는 이런 고품질의 스피커를 여러 디자인을 선택을 해 가지고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고품질 음악도 감상하시면서 음악 관련 사료도 열람하실 수 있도록 구성을 좀 예쁘게 했습니다. 청음공간은 CD보다는 LP자료를 많이 구매를 했는데, 요즘은 트렌트가 LP를 찾하게 생각하고 수집한 다거나 LP를 들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500점 정도 구비를 해 놔고, 턴테이블도 4대 배치를 했습니다. CD도 같이 전시를 했고요. 그래서 이 커뮤니 'c101' 라는 공간은 커뮤니티(교감)이라는 단어의 앞 글자를 땀어요. 직접적으로 감상하는 음악도 있지만 밀접하게 핸드폰으로 몰입하면서 음악과 직접 교감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c101'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우리 아중호수도서관의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101여 미터 공간은 뜻이 단순히 도서관의 길이뿐만 아니라 대학교의 '교양수업'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챕터 1의 1단계라는 의미를 담아서 '1 0 1'이 되라는 의미가 생겼는데, 여기 아중호수 도서관도 이용자들에게 음악에 몰입하고, 인문학에 빠져드는 그런 도서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성한 것입니다. 개관 당시 예상외로 방문객이 4천여명 찾아 주셨고 지난 주에도 주말 일평균 4천 명이 방문을 해서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현재, 관리하는 인원은 직원이 3명이 있고요. 기간제 근로자가 6명 있습니다. 도서대출은 회원제로 운영하는데 단순히 책을 보신다거나 이용하시는 것 자체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중호수도서관 현장활동

■ 시설견학 / 질문응답



3. 제3차 현장활동(담양 창평)

- 일시 : 2025년 8월 21일
- 장소 : 창평면 슬로시티 매화나무집 북카페
- 내용 : 김호연 작가 초청 '불편한 편의점' 북 콘서트

담양군 창평면 '매화나무집' 에서 열린 김호연 작가 초청 북콘서트를 견학했다.

이번 북콘서트는 밀리언셀러 『불편한 편의점』(150만부 판매, 국립중앙도서관 2022올해의 책)의 저자 김호연 작가를 초청해 진행됐다. 강연에서는 문학과 독서 문화가 지역 인문생태와 만나는 지점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으며, 포스트모더니즘, AI, 한글의 세계적 위상 등 다양한 인문학 주제를 아우르는 프로그램 구성도 눈길을 끌었다. 현장활동에서는 주민 참여형 포럼 구조, 지역 매체와의 협력 모델, 운영 방식과 파급 효과를 면밀히 살펴보고 군 단위 문화정책 적용 가능성을 모색했다.

연구회는 이러한 북콘서트가 청중 몰입도와 지역 담론 활성화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주목하며, 군 단위 문화 프로그램에 적용할 경우 주민 주도형 공론장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김호연 작가와의 대화에서는 참가자들이 패널로서 작가의 창작 과정과 삶을 주제로 밀도 높은 질의를 이어가며 현장 소통을 이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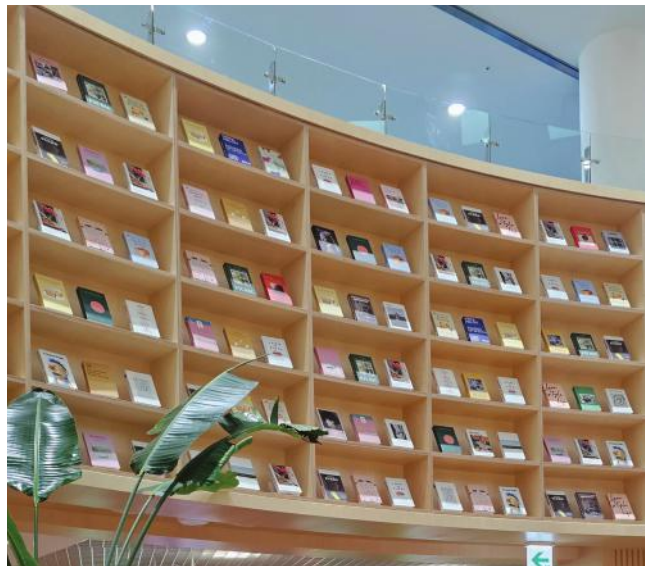
■ 북콘서트 참석 / 작가면담



4. 제4차 현장활동(대구 달성)

- 일시 ; 2025년 9월 11일
- 장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린이숲 도서관'
- 참석자 : 5명(박준엽 의원, 이현우 입법지원팀장, 김희열 정책지원관, 최린 정책지원관, 정윤택 운전6급)
- 내용 : 달성군 어린이숲 도서관 운영 현황
- 참고 : 출장결과 보고서

■ 간담회 / 시설견학



출장결과 보고서

(달성군 어린이 숲 도서관)

■ 특징

- 도서관 관장(장선희 님)은 교육청에서 38년간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작년 연말에 퇴직하였고, 현재는 공모 관장직으로 재직중임
- 북유럽등 해외 선진지 견학을 통한 해외 사례 학습
- 육아지원센터나 가족문화센터가 같은 건물에 붙어 있어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임, 또한 근처에 과기부 소속 도서관이나 과학관,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학교) 같은 여러 주제를 수용할 수 있을 시설이 존재함
- 처음에는 일반도서관으로 개관하였으나, 어린이 연령대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일반도서관 설계부분을 다 바꿔서 리모델링을 통해 새로운 어린이 도서관으로 재개관하였음, 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3층, 연면적 3,299.11㎡, 주차대수 110대 가능
- 링크: https://www.dalseong.daegu.kr/culture/index.do?menu_id=00005582
- ▷ 어린이 연령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자체의 혁신적 노력이 엿보임
- 개관시기가 두달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리모델링비가 도서관만 50억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었음
- 달성군은 군중에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태어나고, 평균 연령이 40세정도임
- ▷ 11만명이 넘게 방문객이 이용하였음, 주말에는 최대 5천여명이 이용함
- 인스타그램 방문 조회수가 8만정도로, 전국 각지에서 관심이 높은 곳임
- 아이들의 특징을 고려하여 1층은 자유로운 분위기, 2층과 3층은 좀더 분위기로 운영하고 있지만, 특별하게 규제를 두고 있지는 않음
- 어린이들은 직접 체험 · 참여하는 공간을 좋아하고 흥미가 많음
- 해리포터 방, 숲 열람실, 요정들의 오두막 등 독특한 테마 공간으로

■ 구성

- 가족들이 함께 할수 있는 가족열람실이 존재
- 영어키즈체험실 운영으로, 영어로 직접 수업하는 공간이 존재
- 비정규직은 5명으로, 청소하시는 분 2명과 도서관 근로자 3명으로 풀타임 근무
- ▷ 추후, 초단시간 근로자들을 운영하여 인건비 부분 절감하는 방안도 간구
- 음식이나 취식물을 직접 가지고와서 먹을 수 있는 테라스도 존재

■ 예산현황

구분	예산
인테리어용역	45억
ICT장비	6.8억
도서구입	4.6억
전산작업(MARC)	0.6억
기타전산장비	2.2억
집기비품 및 기타지출	4.1억
합계	63.3억

■ 견학목적

- 담양군 도서관 운영의 지자체 방안과 노력 공유
- 달성군 어린이 특성화 도서관의 견학을 통한 도시 문화 정체성 확립에 대한 노력 공유 및 학습
- 선진사례를 견학·답습하여 담양군 특성화 테마형 도서관 건립을 통한 담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
- 담양군 어린이를 위한 담양군 도서관의 다각적 활용 방안 간구

■ 소감 및 느낀점

- 담양군 관광객과 생활인구를 활용한 도서관의 관광 콘텐츠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
- 어린이 도서관을 구성하며 쏟은 달성군의 목표와 노력이 또렷하게 전달됨
- 달성군의 군정 방향과 추진력에 대한 비전과 투자에 대한 선진사례 학습
- 도서관의 문화·관광 콘텐츠를 활성화시켜 담양군 정주의도 확대를 위함

■ 담양군 향후 방안

- 담양군 테마를 접목하여 어린이들이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체험공간으로 구성 필요
- 도서관 건립시 BF인증등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
- 아이들뿐 아니라 부모님도 함께 학습할 수 있는 다각적인 프로그램 구성 간구
- 올바른 방향성을 갖춘 담양 맞춤형 복합공간을 창출
- 담양군민뿐 아니라 찾아오는 여행자들을 두루 수용할 수 있는 테마 공간 조성
- 도서관을 통한 관광 산업 증진 효과로 지방경제 활성화와 인구 증가에 기여

▶ 관계자 인터뷰 질문답변

· 박준엽 의원

전남 생활인구 1위를 기록하는 담양으로서는 도서관이 담양의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접목이 되었으면 한다. 이런 구성을 해나감에 있어 군수님의 군정 방향이나 추진력을 통해 진행해 나가셨는지 혹은 주위에 서 요구 사항들이 있어서 군수님께서 받아들여 진행이 된 부분인지?

· 달성군 장선희 관장

전체 계획은 용역 통해서 진행하였다. 전국 도서관 분야 선구자이신 교수님과 전문가들을 통하여 도서관의 방향을 제시받았고, 군수님 자체도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 도시’라는 비전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또한, 어린이 도서관의 성공에 발맞추어 근처에 500억 규모의 추가 도서관 설게 입찰이 진행중이다.

▷ 어린이는 자라면, 이들이 청소년으로 성장한다. 이러한 수요들을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 ‘특화 도서관’을 구상하여 진행중이다, 청소년 특화도서관과 영어 특화 도서관을 생각하고 있다. 또한, 어르신(노인) 특화 도서관도 고려중이다.

5. 제5차 현장활동 (2025서울국제도서전시회)

2025서울국제도서전 '성황'

6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첫날부터 관람객 대거 몰려

2025 서울국제도서전(도서전)이 6월 1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 22일까지 5일간 성황리에 열렸다.

올해 도서전은 <믿을 구석-The Last Resort> 주제로 열렸으며 첫날부터 관람객이 대거 몰렸다. 여기저기서 어디서 줄을 서야 하는지를 묻는 문의가 속출하고 오후에는 부스

마다 인파로 가득 찼다.

이번 도서전시회는 전기간에 걸쳐 입장료가 예매로 진행됐으며 모두 매진됐다. 주최 측은 “첫날부터 청년층 등 관람객이 대거 몰리면서 올해 도서전도 지난해에 이어 흥행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국제도서전시회 현장활동(용역사)

■ 행사참가 출판사 · 도서관 / 관람인파







▲담빛예술창고



담양군 군립도서관 설립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

05

담양군 군립도서관 설립 추진방안

제1절 담양군 군립도서관 설립 기본구상

1. 담양군 군립도서관 설립 취지와 목적
2. 담양군 군립도서관 운영 비전과 목표
3. 담양군 군립도서관 추진 관련 조례
4. 담양군 군립도서관 추진 관련 보도기사

제2절 담양군 테마형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1. 담양군 테마형 작은도서관 활성화
2. 담양군 테마형 작은도서관 특화방안

제3절 담양군 군립도서관 설립 및 테마형 도서관 활성화 제언

1. 담양군 군립도서관 설립 제언
2. 담양군 테마형 도서관 활성화 제언
3. 담양군의회 연구단체 의원 의견

05

담양군 군립도서관 설립 추진방안

제1절 담양군 군립도서관 설립 기본구상

1. 담양군 군립도서관 설립 취지와 목적

인문학 교육특구로 지정된 담양군은 아직까지 군립도서관이 없으므로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담양군 군립도서관』 건립 및 운영을 통해 군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생활인구 및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체류공간 조성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담양군은 생활인구 전국 1위의 장점을 활용하고 아울러 광주-담양-대구간 달빛내륙철도 개설에 따른 관광객 유입을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체류형 관광을 강화하는 인문학 관광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담양군이 선진지역 공공도서관과 군립도서관 벤치마킹을 통한 실용적 건립 모델과 활용계획을 제시하고 군립도서관을 건립한 후 이용률을 극대화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부의 제4차 도서관 발전종합계획(2028)과 연계한 관광과 교육의 융합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담양군을 ‘인문학 · 정원문화 기반의 도서관 도시’로 브랜드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담양의 관광자원과 담양군립도서관 및 테마형 작은도서관이 어우러진 브랜딩이 필요하다. 지역내 유희 공공시설을 활용한 테마형 작은도서관 확충은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소멸 대응하고 인문학 교육특구 담양군에 부합하는 새로운 인문학 관광콘텐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담양군 군립도서관 운영 비전과 목표

【비전】

인문학 · 정원문화 기반의 '도서관 도시, 담양' 구현

담양군 군립도서관을 복합문화 · 교육 · 관광 허브로 구축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인구 · 체류형 관광을 건인

【목표】

(1) 복합문화공간 허브 구축

- 군립도서관을 지식 · 문화 · 커뮤니티 기능이 결합된 거점으로 조성
- 전시 · 공연 · 창작(메이커/아카이브) · 커뮤니티룸 등 다기능 공간 설계

(2) 생활인구 · 체류형 관광 유치

- 도서관 체험형 프로그램(해설 · 정원서가 · 야간개장)으로 평균 체류시간 증대
- 지역 관광 동선(죽녹원 · 메타세쿼이아길 등)과 연계 패스 운영

(3) 인문학 관광 모델 제시

- 인문학 테마 큐레이션(문학 · 철학 · 지역사)과 정원문화 콘텐츠 결합
- 북투어, 작가 레지던시, 인문학 축제 등 연중 기획

(4) 선진 도서관 벤치마킹 기반 실용모델

- 선진 공공도서관 사례의 공간동선 · 서비스 · 운영지표 도입
- 단계별 개관 · 안정화 · 확장 로드맵과 표준운영지침(SOP) 수립

(5) 이용률 극대화 운영체계

- 데이터 기반 수서 · 프로그램 편성, 피크타임 확장운영, 모바일 사전예약
- 생활권 '테마형 작은도서관' 과 상호대차 · 공동프로그램 연계

(6)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8) 정합성 확보

- 디지털 전환(전자자원, 메타데이터, 키오스크), 모두를 위한 접근성(UD 설계)
- 지역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생활 SOC 역할 강화

(7) 브랜드화: '인문학 · 정원문화 도서관 도시'

- 통합 BI/슬로건 개발, 공공디자인 · 사인 · 굿즈 · 온라인 채널 일관화
- 정원도시 담양 감성의 공간 브랜딩(내외부 녹지 · 서가 경관화)

(8) 테마형 작은도서관 확충 및 네트워크

- 유희 공공시설 리모델링으로 생활거점 분산 배치
- 주제 특화(정원 · 장인 · 미식 · 대숲 · 달빛열차)와 군립도서관 콘텐츠 공유

(9) 지역공동체 활성화 · 지역소멸 대응

- 마을교육공동체, 평생학습, 청년 · 시니어 일자리 연계
- 지역 기록 아카이브 구축과 로컬 크리에이터 협업

(10) 교통 호재 대응 관광 인프라 연계

- 달빛내륙철도 개통 대비 환승형 방문코스, 스마트 안내 · 예약 · 티켓 통합
- 야간 · 주말 특화 프로그램으로 재방문 · 체류 연장 유도

3. 담양군 군립도서관 추진 관련 조례

담양군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정) 2025.07.18 조례 제301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담양군의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담양군민의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독서 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2. “독서 자료”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도서·연속간행물 등 인쇄 자료, 시청각 자료, 전자 자료 및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독서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3. “독서소외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4.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모든 담양군민이 독서 자료를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균등한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 추진을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연도별 시행 계획) 군수는 법 제5조의 기본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독서 문화 진흥 정책 추진 방향과 목표
2. 추진 과제별 세부 수행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독서 문화 진흥 사업) ① 군수는 담양군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한 독서 문화 진흥 행사
2. 생애주기별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
3. 직장과 지역의 독서 문화 동아리 장려 및 지원
4. 독서소외인 및 소외지역의 독서 문화 활동 지원
5. 다문화가정의 독서 문화 활동 지원
6.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홍보 활동
7. 그 밖에 군수가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독서 문화 진흥 사업 지원)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도서관·지역서점·학교 및 담양교육지원청 등의 관계기관 또는 민간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제정 2025. 7. 18. 제30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담양군 군립도서관 추진 관련 보도기사

“담양에도 군립도서관이 필요하다”

- 전남도내 22개 시·군중 담양·보성만 없어
- 인문학 교육도시 담양 위상과 대조적 현실
- 군립도서관 건립 공론화 및 정책반영 필요



담양군에도 군립도서관 건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남도내 대부분의 시·군에서 시립·군립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인문학 교육도시를 지향하는 담양군은 아직까지 그에 걸맞는 군립도서관이 없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군립도서관은 군청이 직접 설립·운영하는 공공도서관으로,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목적’의 도서관이다. 단순한 독서공간을 넘어 지역의 문화·교육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크다.

담양군의회 의원 연구모임에서도 금년에 군립도서관 설립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에 나서고 있으며 지역언론 또한 정책반영을 촉구하고 있다. 본지도 이 연구모임에 참여, 군립도서관 건립 논의가 실

제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관련, 의원연구모임 활동중인 박은서·박준엽 의원은 “담양군 군립도서관 건립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담양군 차원에서 논의되거나 정책방향을 제시한 바 없으며 지역사회에서도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인문학 교육도시 정체성과 위상에 걸맞는 담양군립도서관 건립 문제를 심도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교육 전문가들 또한 “지역에 제대로 된 도서관이 없다는 것은 곧 살기 불편한 곳이라는 의미로 이어진다. 반대로 다양한 형태의 도서관이 잘 갖춘 곳은 그 지역이 살 만한 곳이라는 선언과 같다”며 도서관의 상징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미 교육청이 운영

하는 공공도서관이 존재한다는 점을 이유로 군립도서관의 필요성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역에 다양한 형태의 도서관이 많을수록 좋은 것이며 권장할 일이다”면서 “특히, 군립도서관의 설립은 지역 청소년을 비롯한 모든 군민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군립도서관은 단순히 지식정보 제공의 기능을 넘어 청소년들에게는 미래를 준비할 학습의 장, 주민들에게는 평생학습과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한다. 더 나아가 인구 유입과 정주여건 개선의 기반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현재 전남에서는 목포·여수·순천·나주·광양에 시립도서관이, 강진·고흥·곡성·구례·신안·영광·영암·완도·장성·장흥·진도·함평·해남·화순·무안 등 15개 군 지역에 군립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담양군은 보성군과 함께 전남에서 드물게 군립도서관이 없는 지역으로 남아있어 인문학 교육도시 위상과는 대조적인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담양군이 진정으로 인문학 교육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군립도서관 건립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지현 기자

담양군의회 인문학정책연구회, 선진지 견학

- 군립도서관 설립목적 의원연구단체 현장 활동
- 부산 F1963, 마산 지혜의바다 도서관 등 방문
- 담양특색 담긴 복합문화공간 조성 모색



담양군의회(의장 장명영) 의원연구단체 '담양군 인문학정책연구회' (대표위원 박준엽 의원)가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군립도서관 설립 및 활성화를 주제로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선진지 견학에서 인문학정책연구회는 첫날인 29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F1963을 방문하고 건축·사진·미술·음악 등 4개 분야에 특화된 예술전문도서관 'F1963 도서관'을 찾아 폐공장을 리모델링한 재생건축 사례와 특화도서관 운영 노하우를 살폈다.

견학 이틀째인 30일에는 칠새도래지로 유명한 주남저수지 인근에 위치한 이점을 살려 생태환경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창원시 '주남환경학교'를 찾아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현황을 살폈다.

이어 오후에는 마산시 '지혜의 바다' 도서관을 방문하고 폐교

된 중학교 체육관을 3층 규모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한 과정, 청소년들을 위한 웹툰방, 레고방, 보드방 등 이용자 중심 설계의 장점, 도서관을 넘어 다양한 공연 및 강연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복합독서문화공간으로 거듭난 우수사례 등을 살폈다.

이번 연구활동에 나선 최용만·노대현·박은서·박준엽 의원은 "‘인문학 교육특구’ 담양에 인문학과 독서문화의 기반을 조성하고 군립도서관 설립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선진지를 찾았다"며 "이번 선진지 견학에서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담양만의 특색이 담긴 복합문화공간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해 면밀히 연구하겠다."고 한 목소리로 밝혔다.

한편, 담양군의회 인문학정책연구회는 박준엽 의원이 대표의원을 맡고 있으며 최용만·노대현·박은서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박지현 기자

군의회 인문학정책연구회, '북콘서트' 참관

- 밀리언셀러 『불편한 편의점』 김호연 작가 강연
- 창평 매화나무집 한옥민박서 열려
- 주민 참여형 독서문화 활성화 모색



담양군의회(의장 장명영) 의원연구단체 '담양군 인문학정책연구회' (대표위원 박준업 의원)가 현장활동 일환으로 지난 21일 창평면 '매화나무집'에서 열린 '열편의 인문학 이야기' 김호연 작가 초청 북콘서트를 참관했다.

매화나무집에서 열린 이번 8월 강좌는 150만부가 팔려 국립중앙도서관 2022년 올해의 책에 선정된 밀리언셀러 『불편한 편의점』의 저자 김호연 작가를 초청해 진행됐다.

강연에서는 문학과 독서문화가 지역 인문생태와 만나는 지점을 주제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으며 포스트모더니즘, AI, 한글의 세계적 위상 등 다양한 인문학 주제를 아우르는 프로그램 구성도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참가자 누구나 패널로 참여해 메인 패널과 함께 토론을 이어가는 참여형 강연 형식으로 진행됐다.

연구회는 이러한 운영방식이 청중 몰입도와 지역담론 활성화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주목하며, 군 단위 문화 프로그램에

적용할 경우 주민주도형 공론장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실제로 김호연 작가와의 대화에서는 참가자들이 패널로서 작가의 창작과정과 삶을 주제로 밀도 높은 질의를 이어가며 현장 소통을 이끌었다.

이날 북콘서트에서 인문학정책연구회는 주민참여형 포럼의 구조, 지역 매체와의 협력모델, 운영방식과 파급효과를 면밀히 살펴보고 군 단위 문화정책 적용 가능성을 모색했다.

한편, 담양군의회 인문학정책연구회는 박준업 의원이 대표위원을 맡고 있으며 최용만·노대현·박은서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연구회는 이번 북콘서트 참관 및 현장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참여형 포럼 도입, 지역 언론·문화 공간과의 협력 체계 강화, 독서·문학 프로그램의 정례화 등을 포함한 정책 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지현 기자

제2절 담양군 테마형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1. 담양군 테마형 작은도서관 활성화

담양군 다양한 형태의 문화공간을 보유하고 있으며 취지의 목적에 맞게 활용하고 있으나 일부 공간은 활용도가 낮거나 콘텐츠를 보완해 보다 효율적인 공간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담양군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공간 중 테마형 작은도서관 기능을 보강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시설은 ①담양관광정보센터(죽녹원 앞) ② 죽녹원 추월당 카페 ③ 담양상설시장 3층 카페 ④ 다미담예술구 플랫폼 및 담빛마루(담양글로벌문화관) ⑤ LP음악충전소(담양읍사무소 옆) ⑥ 담빛예술창고 전시, 문화공간 ⑦ 해동문화예술촌 추자혜(한옥공간) 및 북카페(고택) ⑧ 정미다방(천변리 뚝방국수 앞) ⑨ 담양문화회관 로비(문화공간) ⑩ 담빛청소년문화의 집(담양문화회관 옆) ⑪ 양매재(역사문화공원 한옥) ⑫ 한재골 숲속의 유치원(현재 빈 공간) 등 10여 곳이다.

이들 문화공간은 위치·건물 유형·이용객 성격이 다양하지만 “인문학교육특구”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각 장소의 맥락을 반영해 과소투자·과운영을 피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경우 공간활용도를 충분히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들 공간의 테마형 도서관 기능을 겸한 콘텐츠 보강의 핵심은 무엇보다 ▲테마 명확화 ▲최소기반시설(책·좌석·ICT) 확충 ▲운영 파트너십 ▲프로그램(인문+관광+청년·지역상인 연계)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2. 담양군 테마형 작은도서관 특화방안

(1) 테마형 작은도서관 특화

●핵심테마 설정 :

공간별 고유 테마 1가지로 명확화하고, 인문학교육특구 핵심역량과 연계하는: 토론·리터러시·문화향유·지역학을 특화하도록 한다.

예) 죽녹원권=전통·생태인문/시장권=생활문화·로컬푸드/청소년=디지털·진로/한옥=고전·차문화 등

●기본시설·환경 :

- 도서관 이용을 위한 1인 좌석과 테이블 외에 소그룹 테이블(4~8인석)을 갖추도록 한다.
- 테마형 도서관 기능에 합당한 전문도서나 핵심도서를 구비하도록 한다(500~1,500권) 스타터(기증+구매 혼합), 로테이션 교체(분기당 1회)
-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경사로와 휠체어 회전반경, 엘리베이터, 비상동선·소화기·CCTV 등을 갖추도록 한다. 아울러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공공 Wi, 좌석 콘센트, 태블릿, QR 큐레이션(서가 라벨+모바일 해설용) 등을 갖추도록 한다.

●프로그램 :

- 해당 도서관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과 문화행사를 기간별, 계절별로 운영하도록 한다.
- 주간 소규모 프로그램: 북토크(저녁 1회), 책공방(주말 1회), 필사·낭독(평일 낮 1회).

- 계절 행사: 지역학 강연 · 걷기(봄/가을), 가족 독서캠프(여름), 기록전(겨울).
- 관광 연계: 스탬프 투어, 해설 지도, 굿즈(엽서 · 리딩패스).

(2) 테마형 작은도서관 운영 모델

공간별로 테마형 작은도서관 운영 모델을 설정하고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한다.

- **마이크로 라이브러리+카페 결합형 :**
체류 · 매출 동시 확보(관광지 · 시장 · 카페형에 적합).
- **전시 · 공연 복합형 :**
북토크 · 소규모 공연 · 전시 순환(예술창고 · 문화회관 로비형).
- **학습 · 메이커형 :**
디지털 리터러시 · Z세대 콘텐츠 제작(청소년문화의집 · 빈 공간).
- **한옥 · 고전 특화형 :**
고전읽기 · 다도 · 서예 · 정좌 낭독(한옥 · 고택).

(3) 단계별 추진 로드맵(6~18개월)

공간별 테마형 작은도서관 기능 보강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을 작성하고 추진하도록 한다.

- 수요 · 동선 조사, 각 공간 테마 확정, 파트너 MOU, 예산 · 인허가(0-3개월)
- 파일럿 3개소(죽녹원권 1, 시장/도심 1, 허브 1) 최소환경 구축, 컬렉션 스타터, 시범 프로그램 런칭(3-5개월)
- 성과평가(대시보드), 순회 큐레이션 · 공동 마케팅, 무인대출 도입(6-9개월)
- 나머지 거점 확장, 허브-스포크 정착, 관광 · 교육 패키지 출시(10-12개월)
- 고도화(레지던시, 지역학 아카이브, 청소년 크리에이터 랩), 민관협력 재정 모델 정비(13-18개월)

제3절 담양군 군립도서관 설립 및 테마형 도서관 활성화 제안

1. 담양군 군립도서관 설립 제안



▲담양군립도서관 설립(예시장소)

담양군 인문학교육특구 시그니처 모델을 정립하고, 군민 학습과 문화격차 해소, 체류형 관광 전환 및 지역경제 파급은 물론 지역학(담양학) 자산의 체계적 보존·확산을 위해 군립도서관 건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제안하도록 한다.

(1) 비전·목표

- 비전 : “숲과 사람을 잇는 담양의 지식허브”
- 목표 : 인문학교육특구 역량(인문·생태·지역학)을 집약한 허브-스포크 도서관 네트워크 구축, 군민·관광객 모두가 즐기는 체류형 공공문화공간 실현

(2) 건립 개요

- 입지 : 문화회관→시장→예술구 연계 축, 대중교통·주차 용이 지점(예: 담빛예술창고 일원)
- 규모 : 연면적 5,000~7,500㎡
- 공간구성
 - 1F: 열린도서관·가족열람·전시·카페/복합
 - 2F: 주제서가·스터디룸·미디어/메이커실·청소년 스튜디오
 - 3F: 담양학 아카이브·연구실·보존서고
 - B1: 다목적홀(150~250석)

(3) 핵심 서비스 · 프로그램

- 상시 : 무인대출 · 앱 예약/스탬프, QR 큐레이션, 다국어 안내
- 정기 : 인문살롱, 담양학 답사/구술기록, 청소년 크리에이터 랩, 가족 그림책 놀이, LP 청음 · 아트북 워크숍
- 축제 : 담양 북페스타, 한옥 고전주간, 생태 인문주간

(4) 허브-스포크 운영

- 허브(군립도서관) : 표준화(서비스 · 데이터), 순회 큐레이션, 담양학 아카이브 총괄
- 스포크(연계거점) : 관광정보센터(생태), 추월당(시 · 차), 시장 3층(생활문화), 예술창고/해동촌(예술 · 한옥), 청소년문화의집(디지털), 숲속 유치원(유아 생태)

(5) 이용률 제고 방안

- 접근성 : 주 7일 · 야간 운영, 셔틀/자전거, 가족편의
- 참여/디지털 : 멤버십 앱 리워드, 전시 · 도서 추천, 이용자 주도 북클럽 지원
- 관광연계 : 체류형 코스(책으로 걷는 담양 6선), 관광패스 · 굿즈

(6) 컬렉션 · 아카이브

- 장서 : 5년 10만권(인문 · 생태 · 예술 · 지역학 · 아동/청소년 · 다국어)
- 담양학 : 대나무 · 정원 · 가사문학 · 향토사 · 사진/지도 · 구술의 디지털 아카이브

(7) 조직 · 예산(개략)

- 조직 : 서비스기획, 자료 · 아카이브, 프로그램, 청소년 · 디지털, 시설 · IT, 인력(11~13명)
- 예산 : 건립비용(350~500억), 집기/ICT(15~25억), 초기 장서(15~25억), 디지털 아카이브(5~8억)
연간 운영비(20~35억-인건비 · 프로그램)

(8) 로드맵(36개월)

- 기본구상 · 부지 · 주민참여 설계(0~6개월)
- 실시설계 · 허가, 파일럿 3거점 운영(7~12개월)
- 시공 · 인력 · 시스템 구축(13~30개월)
- 소프트오픈→정식 개관(31~36개월)

2. 담양군 테마형 도서관 활성화 제안(공간 맞춤형)

담양군 인문학교육특구의 역량(인문 · 생태 · 지역학 · 문화예술)을 집약한 지역 지식 · 문화 허브 구축을 위해 생활 권별 · 관광권역별 문화공간과 연계한 공간 맞춤형 및 테마형 도서관 네트워크를 구현함으로써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누리는 체류형 · 경험형 공공도서관 모델을 정착시키도록 한다.

(1) 담양관광정보센터(죽녹원 앞)

- 컨셉 : 생태 · 대나무 인문 라이브러리
- 준비 : 관광안내 동선 분리, 15~20석 리딩라운지, 외국어(영 · 중 · 일) 가이드북 존, 걷기 지도, QR 다국어 해설
- 프로그램 : 생태해설 북워크, 대나무공예 체험과 북큐레이션
- 지표분석 : 체류시간 증가, 해설 참여율, 외국어 자료 대출/열람

(2) 죽녹원 추월당 카페

- 컨셉 : 시 · 차(茶) 라이브러리
- 준비 : 습기 · 향 관리, 시집 · 에세이 · 차문화 컬렉션, 시 필사 키트
- 프로그램 : 시낭독회, 차명상(30분 프로그램)
- 파트너십 : 지역 시인 · 차인회

(3) 담양상설시장 3층 카페

- 컨셉 : 생활문화 · 로컬푸드 북라운지
- 준비 : 시장 소음 차단, 키즈코너, 요리책 · 로컬경제 · 창업 서가
- 프로그램 : 장날 북플리마켓, 상인이야기 기록전, 레시피 클럽
- 파트너십 : 상인회, 로컬세프

(4) 다미담예술구 빈 공간 및 담빛마루(담양글로벌문화관)

- 컨셉 : 허브형 인문 교육도서관
- 준비 : 강의실+살롱형 서가, 소규모 스튜디오(팟캐스트), 무인대출
- 프로그램 : 인문학 강좌 시리즈, 작가 레지던시 연계 북토크

(5) LP음악충전소(담양읍사무소 옆)

- 컨셉 : 음악 · 청음 라이브러리
- 준비 : 흡음 · 턴테이블 관리, 음악사 · 평론 · 가수전기 서가, 헤드폰 청음석
- 프로그램 : LP 해설 감상회, 앨범 읽기 클럽

(6) 담빛예술창고

- 컨셉 : 아트북 · 사진 · 디자인 라이브러리
- 준비 : 도록 · 아트북 보존, 이동형 서가, 전시 연계 도슨트 북가이드
- 프로그램 : 전시 연계 북살롱, 아티스트 북메이킹 워크숍

(7) 해동문화예술촌 추자해(한옥), 북카페(고택)

- 컨셉 : 고전 · 인문 · 서예 · 다도
- 준비 : 좌식 독서, 한지 조명, 한옥 동선 배려, 온습도 관리
- 프로그램 : 사서와 읽는 사서삼경 · 택리지, 서예체험, 차 · 고전 낭독

(8) 정미다방(천변리 뚝방국수 앞)

- 컨셉 : 동네 기록 아카이브
- 준비 : 사진 · 구술 채록 코너, 소형 스캐너, 향토사 · 에세이
- 프로그램 : 골목 스토리맵 만들기, 노포 인터뷰의 밤

(9) 담양문화회관 로비(문화공간)

- 컨셉 : 이동형 큐레이션 로비 라이브러리
- 준비 : 모듈 서가 · 포디움, 공연 · 전시와 주제 연동
- 프로그램 : 공연 전 20분 프리토크, 저자와의 만남(로비 토크)

(10) 담빛청소년문화의집(문화회관 옆)

- 컨셉 : 청소년 디지털 리터러시 · 진로 라이브러리
- 준비 : 그래픽노블 · 진로 · 심리 서가, 팟캐스트 · 영상 코너, 학습존
- 프로그램 : 북튜버/팟캐스터 만들기, 진로 북멘토링, 시험기 휴식살롱
- 파트너십 : 학교 동아리, 진로체험지원센터

(11) 양매재(역사문화공원 한옥)

- 컨셉 : 담양학 라이브러리
- 준비 : 담양사 · 인물 · 지리 · 생태 자료, 고문서 복제본, 산책 루트 지도
- 프로그램 : 사료 읽기 모임, 문화유산 답사 북워크
- 파트너십 : 문화재단, 향토사학단체

(12) 한재골 숲속의 유치원(현재 빈 공간)

- 컨셉 : 유아 생태그림책 숲도서관
- 준비 : 대형 그림책, 놀이독서 키트, 부모 코너
- 프로그램 : 숲 읽기 놀이, 부모-아이 동반 낭독, 계절 관찰일지

3. 담양군의회 연구단체 의원 의견



박준엽 대표의원

담양군은 대표적인 관광지인 죽녹원과 관방제림,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등으로 전남과 광주를 대표하는 내륙형 관광 1번지로 자리매김했다. 교통 접근성이 좋고, 천혜의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한 관광의 형태는 오랫동안 ‘힐링관광’의 대표적인 모델로 손꼽혀 왔다. 그러나 최근 관광의 흐름은 단체 여행에서 개인단위로, 명소를 중심으로 방문하는 체험형 관광에서 짧은 기간 동안 휴식·재충전·치유를 목적으로 한 체류형 관광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담양군의 관광도 자연을 기반으로 한 기존의 관광 체계를 넘어, 정서적 쉼과 지적 여유를 제공하는 새로운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연구모임을 기획하게 된 계기가 되어 준 전북 전주시는 ‘책의 도시 전주’라는 슬로건 아래 13개의 시립도서관과 12개의 직영 작은도서관을 테마형으로 구성해 시민뿐 아니라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도서관 투어’라는 새로운 여행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책을 매개로 한 이 도서관 여행은 단순한 독서가 아닌 체험·휴식·문화가 결합된 복합형 관광으로 자리 잡으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연구모임을 진행하면서 방문한 부산의 'F1963' 도서관은 1963년부터 2008년까지 와이어 공장으로 운영하던 공간을 2016년 부산비엔날레를 계기로 아트 라이브러리, 전시관, 콘서트홀, 북스토어, 카페 등이 함께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예술 전문 도서가 13,000권 이상이 소장되어 있다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또한 마산에 자리한 '지혜의 바다' 도서관은 책으로 공간을 압도하는 스케일과 미감을 앞세워, 말 그대로 책과 문화가 파도치는 공간으로 구현하고자 폐교 위기의 구암중학교 체육관을 리모델링해 도시재생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았다. 이곳은 웅장한 책장과 개방형 공간을 활용한 전시·강연·공연이 한데 어우러지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은 물론 관광객까지 끌어들이고 있다.

두 도서관의 공통적 특징은 기존 엄숙한 도서관의 고정관념을 깨고, 지식의 공유를 넘어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휴식 등이 가능한 문화복합공간으로서 대인 간 자연스러운 일상적인 커뮤니티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이용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연구모임의 추가적인 활동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어린이 숲 도서관'을 다녀왔다. 이곳은 영·유아 및 어린이들을 위한 특화된 도서관을 올해 7월 개장해 40여일 만에 11만명이 넘는 방문객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이 아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놀이와 체험 프로그램, 아이와 동행한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 등을 함께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인프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처럼 최근 새롭게 구성되는 도서관들은 도서관이 단순 책을 읽고, 빌리는 공간이 아닌 복합문화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책과 문화·예술, 휴식 등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결합되어 지역을 대표하는 공간이 되고, 관광 콘텐츠로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담양군은 이미 풍부한 자연과 문화 기반을 갖추고 있다.

죽녹원과 관방제림,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외에도 역사문화공원, 다미담길, LP음악충전소, 해동문화예술촌 등은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데일리케이션 관광'이 가능한 로컬거점이다. 이러한 지역적 강점을 활용해 담양의 독보적인 자연경관, 새롭게 구성되는 정원문화와 함께 쉼을 더하는 관광으로서 힐링·웰니스 관광의 중심지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먼저, 담양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형 군립도서관을 조성해 지역의 문화거점공간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군립도서관은 단순한 열람공간을 넘어 카페, 전시, 북콘서트,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주변 관광지와 어우러진 문화공간 기능을 수행하고, 앞서 언급한 로컬거점들에 음악·예술·여행 등 관심사가 높은 분야의 관련 서적을 비치해 관광객이 담양 곳곳에 스며드는 테마형 작은도서관을 운영해야 한다.

결국, 담양의 특별한 도서관은 단순한 인프라 확장을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이 아니라, 삶과 여행이 이어지는 새로운 문화를 구현하고, 자연이 주는 치유, 책이 주는 쉼, 사람과의 활발한 교류가 어우러지는 관광으로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면 좋을 것 같다.

박은서 의원

담양군의회 의원 연구모임을 3년째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정작 담양군에서는 우리 연구모임의 결과와 의견에 대해 사실상 반영을 하지않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일부 시책으로 반영하겠다고는 하나 구체적인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의회의 연구모임이 평가는 좋은 편이지만, 자체적인 연구 모임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안타깝다. 앞으로는 연구모임 성과를 공유하고 담양군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우선, 내년에 담양역사문화공원에 있는 양매재(한옥) 건물을 테마형 도서관으로 활용한다고 하니 기대를 가져본다. 이 외에도 관광지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개념으로 담양의 대표적인 관광지 전역에서 『이동도서관』을 적극 활용했으면 한다.

그리고,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인 담빛예술창고 카페도 예전처럼 담양군이 직영하면서 갤러리와 더불어 담양의 특화된 도서관으로 복합기능을 추가하면 감소하고 있는 담빛예술창고 관광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아무튼 인문학 교육특구 담양군이 도서관에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조금씩이라도 정책에 반영한다면 우리 연구모임이 추진하고자 하는 <담양군립도서관 설립과 테마형 도서관 활성화>에 기대를 가져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최용만 의원

역사공원내에 있는 양매재 시설을 테마형 작은도서관으로 활용하는 것은 아주 좋은 방안이다.

인근 순창군이 고추장특화단지에 물놀이장을 개설하고 떡볶이 축제 등을 개최해서 대박이 났는데 우리도 역사문화공원 등에 어린이와 가족단위 관광객이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는 매력있는 콘텐츠의 상성화가 필요하다.

우선, 양매재 한옥건물을 작은도서관을 개설해 인문학적 접근성을 높이고 바로 옆 담빛예술창고와 관방제림 고목숲, 메타가로수길을 연계하는 인문학 산책코스를 조성하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울러, 담양군 관내에 활용도가 낮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지역과 장소에 걸맞는 테마형 도서관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노대현 의원

군청 현관이나 대나무박물관 이런 공공시설물도 공간을 작은도서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도서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규모를 갖춘 건물형태 보다는 우리 여건에 맞는 작은도서관 개념으로 지역사회와 읍면에 산재한 곳곳의 공공건물과 시설을 활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모색했으면 한다.

그리고, 담양군 군립도서관을 짓는다면 담빛예술창고 일원이 좋겠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주변 여건을 봐도 역사문화공원도 활용할 수가 있고, 양매제까지 있는데다 메타가로수길도 연결되고, 전남도립대학과도 연결되고, 이에 도립대가 국립대학이 되니까 대학의 위상이 이제 4년제 국립대로 전환되니 지금하고는 판이하게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담양군의 인문학적 요소가 지금 우리가 수직상승 하는 것인데, 사실상 담양군이 아직 인문학적 자원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실정이다. 어쨌든 군립도서관의 위치나 여건은 담빛예술창고 일원이 가장 적합한 걸로 의견이 모아진 걸로 일단 정리를 하고 나머지 이제 프로그램 부분은 우리가 이제 견학도 갔다 왔지만 또 자료로도 많이 접하고 그러니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좀 고민해야 할 것 같다.

기타의견

이번 연구모임 사전답사와 자료조사, 그리고 직접적인 현장활동을 통해 느낄 수 있었겠지만 인문학교육특구 담양군의 지역 이미지는 물론이고 실효적인 정책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담양군의 정책의지와 예산반영, 그리고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과 공론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담양군 군립도서관 건립 문제도 시급하지만, 담양군의회가 현재 유휴공간으로 놀리고 있는 공공시설에 대한 문화공간으로의 재활용, 테마형 도서관과 맞춤형 작은도서관으로 활용하는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고, 담양군에 적극 건의해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겠으나 단계적으로 몇 군데씩 진행해 나갔으면 한다. 군립도서관 설립의 필요성, 중요성에 대해 여론을 모아가는 의미에서라도 그러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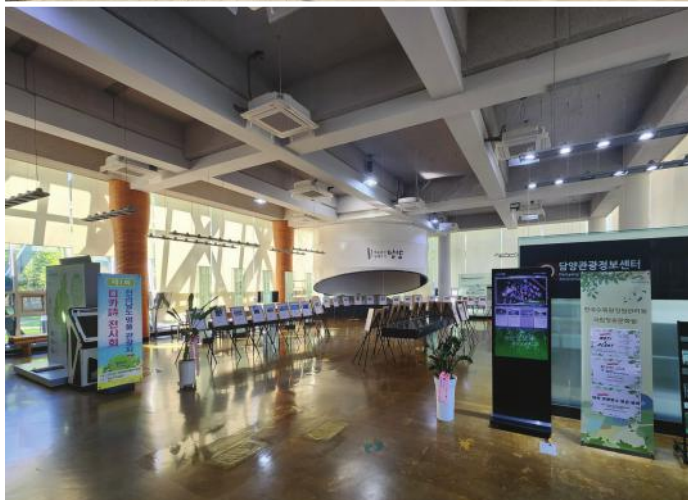
의회가 연구모임의 성과를 지역사회에 알리고 홍보하는 한편, 우선 양매재를 테마형 도서관으로 추진했고, 그 다음에 대전면 한재골 숲속의 어린이집 도서관을 개관하고, 이어 추자해 한옥과 해동문화예술촌의 문화공간, 찻집 등 관내 10여개의 활용 가능한 공간들 중에서 우선 시행 가능한 곳 순으로 공간 맞춤형 테마형 도서관으로 전환하도록 계속 추진 한다면 담양군립도서관 건립이 현실적으로 더 빨리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담양문화공간



담양군 군립도서관 설립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



06

향후 추진과제



- 향후 추진과제
- 결론



06

향후 추진과제

■ 향후 추진과제

1. 부지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

- 교통·접근성, 인근 문화시설·상권과 연계성 고려한 최적의 위치 선정
- 주민 및 전문가 의견 수렴, 기본구상(공간, 기능, 운영 방향) 마무리

2. 예산 확보 및 행정 절차

- 국·도비, 기금, 민간협력 등 다양한 자원 확보 방안 강구
- 관련 행정 인허가(건축, 환경, 교통 등) 및 추진위원회 구성

3. 설계·시공 및 ICT 인프라 구축

- 담양의 정체성을 살린 특화 디자인(대나무·숲·한옥 등) 설계
- 무인대출/스마트 도서관, QR 큐레이션 등 디지털 기반 마련

4. 컬렉션 및 아카이브 체계화

- 담양학 자료(향토사, 사진, 구술 등) 수집·디지털화 전략 수립
- 장서(인문, 예술, 생태, 아동/청소년 등) 주제별 구축

5. 허브-스포크 연계 방안 구체화

- 기존 문화공간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순환(이동형) 서비스 설계
- 거점별 테마 도서관(관광, 예술, 시장 등)과 통합운영플랫폼 구축 추진

6. 시민참여 및 거버넌스 강화

- 주민, 학교, 상인회, 예술가 등 다양한 주체 참여 유도
- 도서관 이용자위원회, 지역 파트너십, 자원봉사 확대

7. 지속 가능성 · 성과 관리 체계 마련

- 단계별(건립 전 · 후 · 운영) 목표 및 성과 지표 설정
- 운영비 · 프로그램 예산의 안정적 확보, 비수기 · 신규수요 적극 대응

■ 결론

담양군 군립도서관은 인문학교육특구의 분산된 문화자원을 통합하는 지식 허브이자,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쓰는 체류형 공공문화 플랫폼이다.

허브-스포크 운영, 담양학 아카이브, 데이터 기반 서비스, 관광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률과 지역 파급 효과를 동시에 극대화할 수 있다.

성공의 관건은 초기에 거버넌스와 표준, 데이터 인프라를 확립하고, 파일럿-소프트오픈-정식개관의 단계를 거치며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본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면, 담양은 “숲과 사람이 연결되는 지식도시”로 자리매김하며 지역학 보존, 교육격차 완화, 체류형 관광 전환,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네 가지 성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담양군립도서관 설립은
‘사람과 지식,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담양’의 미래를 여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참여연구진

책 임 연 구 원	장 광 호	연구용역 총괄 / 자료조사 및 보고서 작성
연 구 원	박 지 현	연구용역 보조 / 자료조사 지원
연 구 보 조 원	장 석 우	연구용역 보조 / 자료조사 지원



 **담양뉴스 신문사**